



구제역 피해농가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세미나

|일시| 2월 17일(목) 11:00-16:00

|장소| 치악산명성수양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2리 158-15 ☎ 033) 762-9998

|주최|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주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2011년 구제역 워크숍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 김 삼 환 목사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과 사명에 따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평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는 명령으로 ‘창조질서’ 보존의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단순한 환경보존을 넘어 온 우주적인 ‘창조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농가는 물론 온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준 이번 구제역 사태를 단순히 축산농가의 경제적·심리적 손실 혹은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경고로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최근 대두되는 살처분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 실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도외시한 애굽의 백성들에게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저주와 그 땅의 물이 피로 변하는 저주가 임했던 출애굽기 재앙의 모습이 겹쳐져 떠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인간 전염사례가 없다고는 하나, 백신접종 가축마저 속수무책으로 감염시키는 구제역 바이러스 변종이 출현하여 사람에게 퍼진다면 이는 애굽 장자들이 모두 죽었던 마지막 저주를 능가하는 온 인류의 대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누가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제역 사태를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 이상의 심각성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인간성 파괴와 자연에 대한 착취를 자행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의 ‘탐욕’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와의 함께 개최하는 <구제역 피해농가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워크숍>은 단순히 상담심리에 기초한 목회적 방법론을 나누는 자리가 아닌 구제역사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진정한 원인을 살펴보는 한국교회의 자성과 기도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워크숍에 참석한 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물론 온 국민이 진지하게 이번사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하신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구제역사태의 대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이미 지난 1월 9일에 <구제역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기도회>와 ‘구제역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구제역 대처 TV 토론회>를 개최하여 CBS기독교방송을 통해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축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받는 축산농민의 돌봄을 위한 <상담 지침서 및 워크북>을 발간·보급합니다. 또한 구제역사태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성찰과 대처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11:30~12:00

인도 : 김 정 운 목사(연대회의 회장, 광덕교회, 통합)

개회인사 김 중 생 목사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찬 송 새 70장(피난처 있으니) 다 같 이
1.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2.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3.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 없네
4.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롬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 도 정 인 봉 목사
(역내교회, 대신)

성경봉독 이사야 30:23~26 인 도 자

말 씬 사람과 동물이 아닌 동물과 사람 이 세 우 목사
(들력교회, 기장)

합심기도 손 주 완 목사
(작은예수공동체, 통합)

광 고 말 은 이

축 도 김 중 배 목사
(반포교회, 통합)

본문말씀_ 이사야 30:23~26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 발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5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점심식사 12:00~13:00

2부 워크숍 13:00~15:30

사회_ 김종훈목사(성남교회, 기갑)

1. 구제역과 피해현황
2. 신학적 관점에서의 구제역 노영상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3.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구제역 최의현박사(연세로템정신과 원장)
4. 생태적 관점에서의 구제역 양재성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5. 목회적 관점에서의 구제역 박순웅목사(강원도 홍천 동면감리교회)

토론_ 1분과 사회 : 홍순일목사(풍계교회, 기갑)

2분과 사회 : 박용철목사(총회농촌선교센터, 통합)

종합토론 사회 : 백명기목사(백운교회, 통합)



1. 개회사	3
2. 일정표	5
3. 구제역관련자료_ 수의과학검역원	9
4. 신학적 관점에서의 구제역_ 노영상	17
5.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구제역_ 최의현	51
6. 생태적 관점에서의 구제역_ 양재성	69
9. 목회적 관점에서의 구제역_ 박순웅 1,2	87



**구제역 피해농가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세미나**

| 구제역 관련 교육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제역 관련 교육자료

2011. 1. 9



1 구제역이란?

□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님)

○ 병인체 : RNA 바이러스로서 7개의 혈청형(A, O, C, Asia1, SAT1, SAT2, SAT3)으로 분류,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C이상의 온도에서,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불활화됨

○ 잠복기는 보통 2내지 8일 정도로 짧으며, 최대 14일

* 생존기간 : 의복·신발(여름 9주, 겨울 14주), 사료(7~28주), 분뇨(2~11주), 돼지 근육(냉장 10일, 냉동 90일), 소 근육(냉장 2~3일, 냉동 10일 이하)

○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 불편, 유량 감소 및 식욕저하 등으로 심하게 앓거나 폐사

□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며, 크게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파가 이루어짐

①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과 접촉이나 감염동물 유래 축산물로 전파되는 직접전파

② 발생농장의 사람(농장 종사자, 사료·동물약품 판매원 등 방문객), 차량(사료가축출하집

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간접접촉전파

③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비말이 공기(바람)를 통해 이웃 농장에 전파되는 공기전파

2 | 해외 구제역 발생 동향 ('10. 11월)

지 역	'08	'09	'10
아 시 아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이스라엘, 중국, 바레인, 인도, 파키스탄, 태국,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팔레스타인, 대만, 중국, 이스라엘, 바레인, 네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방글라데시, 부탄, 이란, 오만, 태국, 미얀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미얀마,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예멘, 베트남, 말레이시아
	19개국	23개국	19개국
유 럽	터키	터키	러시아, 터키
	1개국	1개국	2개국
중 남 미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에콰도르
	3개국	2개국	1개국
아 프 리 카	나이지리아, 잠비아, 모잠비크, 이집트, 토고, 르완다, 나미비아, 베냉,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가나, 말리, 니제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차드, 수단,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이집트, 앙골라, 나이지리아, 리비아, 나미비아, 남아공, 소말리아, 말라위, 가나,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수단, 토고, 케냐, 베냉, 보츠와나, 카메룬, 차드,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세네갈, 우간다	베냉, 보츠와나,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우간다, 에티오피아, 가나, 니제르, 우간다, 소말리아, 남아공, 짐바브웨, 잠비아
	23개국	23개국	17개국
계	46개국	49개국	39개국

〈'10년 아시아 국가 발생 세부 내역〉

국가	발생일	혈청형	국가	발생일	혈청형
일본	4.20, 7.7	O	말레이시아	1~4월	O
중국	1.20, 2.28, 8.2, 8.31, 10.9	O, A	인도	연중	O, A, Asia1
미얀마	10.7	A	팔레스타인	2월	O
몽골	4.26, 8.29	O	스리랑카	연중	O
대만	2.13, 6.25, 8.16	O	아프가니스탄	연중	
카자흐스탄	6.15	O	예멘	연중	O
홍콩	2.10	O	캄보디아	1월, 3월, 5월	
베트남	1~5월, 9~10월	O	카타르	연중	
태국	1월, 3월	O	사우디아라비아	연중	

3 역학조사 내용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농장주의 구제역 발생국(베트남) 여행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유입원인으로 추정

* 농장주가 '10.11.3-11.7일 동안 베트남 여행 후 소독 없이 농장출입

* 분리된 바이러스가 베트남, 태국 등과 동일한 유전자형

○ 또한 농장내의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조사 중
- 서현양돈단지 내 5개 농장중 4개 농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음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후 사람, 동물 및 차량 등의 이동에 의해 타농장 또는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

○ 경북지역 : 사료, 오염지역 방문, 축산인 모임 등

○ 경기지역 : 동일농장주, 축산인 모임, 출하차량, 소 매매 등

○ 강원지역 : 사료, 출하차량, 오염지역 방문, 인공수정, 치료

○ 인천지역 : 동물약품

○ 충남지역 : 출하차량, 톱밥

4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방역조치 사항

1.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 실시하세요.

2.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 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농장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 타농장 방문을 못하게하고, 가족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4.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세요.
 - 여행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을 소독하고, 축사에 출입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입국시 외국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5

축산농장 출입시 소독 등 방역 요령

□ 대상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 전체

○ 수의사, 인공수정사, 지대별크사료, 이표관리, 방역사, 동물약품, 축사시설 설치관리자, 컨설턴트 등

※ 주요 감염경로 : 오염된 사료, 바이러스가 묻은 사람·차량·기구, 공기(바람) 등

□ 농장 출입 전

○ 농장방문 시 농장주가 미리 소독 등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문계획을 농장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 축주가 없는 경우 가급적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방역복 세트(방역복, 비닐장화, 마스크, 장갑 등)와 휴대용 소독기 준비

※ 작업복은 1일 1회 세탁 할 것, 작업복은 방역복이 아님을 항상 주지

○ 방역차량은 가급적 농장밖에 주차

○ 농장 출입구에서 방역복세트를 착용하고, 개인 소독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 가축에 직접 접촉한 경우에는 사용 장비에 대한 소독 실시

※ 방역복세트 착용 전 손과 신발은 충분한 소독 실시

○ 농장 입구에서 출입일시, 목적 등 방문 대장에 기록

※ 농장에 기록대장이 없을 경우, 방문자가 방문기록을 개별 보관

□ 농장 출입 후

○ 농장을 벗어나기전 사용한 기자재 중 일회용은 농장입구에 보관하여 해당농가에서 처리토록 하고

- 가축에 직접 접촉한 기자재는 소독약을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 실시

○ 착용한 방역복세트 일체는 농가 출입구에서 벗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해당 농가에서 처리

※ 방역복세트를 벗고 난 후 손과 신발은 충분한 소독 실시

○ 농장을 나오기 전에 개인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 하고,

- 차량 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 등을 통해 소독 실시

※ 폐사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 해당 시군구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가축방역관

이 도착하여 지시에 따를 것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감수성 가축 사육농장 방문금지 및 축산농가 접촉금지

□ 동물약품 전달 등 단순 방문하는 경우

○ 사전에 방문계획을 농장주에게 유선으로 통보, 농장 입구의 일정 장소에 물건을 전달

※ 가급적 농장출입 및 농장주와의 접촉 자제

6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침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외국인근로자 채용 전 신분확인 등을 철저히 합니다.



- ▶ 첫째 : 신분확인 철저
 - 성명, 여권번호, 가족사항, 출신 국가에서의 직업 등 확인
- ▶ 둘째 :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채용시 방역상 위해가 없는지 확인

③ 농장근무시에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합니다.



- ▶ 첫째 : 농장 내·외부 청소 및 소독, 질병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준수사항 교육
- ▶ 둘째 : 농장 출입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의복과 신발 착용
- ▶ 셋째 : 농장주변 정리 등 업무수행 후에는 소독 후 축사 출입

②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 ▶ 첫째 : 마을회관 등 가족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을 것
- ▶ 둘째 :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채용시 방역상 위해가 없는지 확인
-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
-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하여 세척·소독 등 조치

④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 ▶ 첫째 : 타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방문 금지
- 가급적 전화를 사용토록 권고
- ▶ 둘째 : 휴일 등 외출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농장 밖에서 소독 후 출입 허용

▶ 셋째 : 외국인근로자의 가족·친지 등은 농장

Korean (한국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❶ 자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알, 햄, 소시지,
육포, 치즈 등

❷ 농장 근무시 준수사항



- 농장입구에서 차량 및 사람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축사 출입전에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갈아 신고 들어간다.
- 축사입구에서 손과 신발을 소독하고, 축사 밖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함께 소독한다.



- 축사에서 나올때 입구에서 손과 신발, 사용 장비를 소독한다.
- 축사입구 소독조는 2일에 한번씩 갈아준다.
- 농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복은 2~3일에 한번 이상 세탁하여 착용한다.
- 사료를 적게 먹거나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는 신속하게 농장주에게 알린다.
- 소독약제 사용은 약품의 희석비를 대로 사용토록 한다.

❸ 일과 후 준수사항



- 타 농장 방문은 금지하고 급한 용무는 가급적 전화를 한다.
- 가족· 친구 등을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한다.
- 외출할 때는 외출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외출한다.
- 귀가 즉시 손과 신발을 소독하고 깨끗이 목욕한다.

7

해외 여행시 준수 사항

- ❑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지역 해외여행 자제
 - 발생지역 : 농림수산식품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 제공
- ❑ 부득이하게 구제역, AI 발생지역을 다녀올 경우
 -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상재지역인 중국, 동남아 등을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해서는 안됩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 도착 공·항만의 입국장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동남아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 5일간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도착 즉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구제역 확산에 즈음하여
동물보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노영상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2011년 구제역 확산에 즈음하여 동물보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노 영 상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교수



1. 들어가는 말¹⁾

최근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소들이 구제역에 의해 쓰러진바 있다. 몇 해 전엔 광우병에 의해 많은 소들이 희생당하였는데, 이제는 구제역이 기승을 부린다. 닭과 오리에 대한 조류독감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수많은 소와 돼지와 닭과 오리들이 땅에 묻혀 살처분

1) 본 글은 이전 『장신논단』에 실렸던 글을 약간 개작한 것이다.

되었으며, 조류독감의 인간에 대한 전염도 염려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인간들의 소와 돼지와 닭들에 대한 꾸준한 착취가 그들의 면역성을 낮추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동물들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유가 다른 요인들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조류독감 등이 야생조류에는 치명적인 질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인간의 가축들에 대한 착취적 사육 때문이라는 견해가 옳바를 것이라 사료된다. 오늘의 동물전염병들은 공장식 영농 하에서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어 거의 운동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값 싼 고기를 팔기 위해서라면, 사육 당하는 동물들에 대한 존중 따위는 사치일 뿐이라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가축들이 적절한 시기에 도살되어 부드러운 육질을 갖춘 하나의 상품이 되기까지, 집단영농 하의 동물들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팔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자본주의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이 수많은 동물들을 학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어찌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이나 광우병, 조류독감 역시 이 광기에 가까운 집단사육과 무자비한 도살에 의해 시작된 재앙의 전초일지도 모른다.²⁾ 이제 짐승들도 이러한 환경을 이겨내는 데에 한계에 이른 것 같다. 동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때다. 동물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잘 보호될 때, 인간의 생명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여긴다. 동물의 복지를 나름대로 배려함이 없이, 동물들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옳바르지 않다. 동물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며 착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류에게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동물전염병과 함께 최근 한국의 여러 지역에 신종플루가 확산되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다. 신종플루는 돼지, 사람, 조류 독감의 바이러스가 돼지의 몸속에서 섞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에게서 만들어진 신종 인플루엔자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동물의 면역성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해 이 같은 인수전염병들이 더욱 확산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와 함께 인수전염병이란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차제에 동물보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더 늦으면 동물로부터의 대반격이 인간을 사망의 웅덩이로 밀어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즈음 들어 인간의 동물에 대한 대우 문제가 윤리적 관심으로 부각되었다. 동물이 인간에게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동물권 운동(animal rights movement)은 윤리학자에게나

2) "2008년, 대한민국의 공포 '광우병과 조류독감!' (<http://blog.daum.net/pk23pk/5055716>).

신학자에게나 모두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특히 몇 년 전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물보호법을 가르치는 와이즈(Steven M. Wise)에 의해 쓰여진 『동물우리 흔들기: 동물의 법적 권리에 대하여』(Rattling the Cage: Toward Legal Rights for Animals)라는 책은 영장류를 위시한 동물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 특히 강조한 책으로, 작금의 이런 경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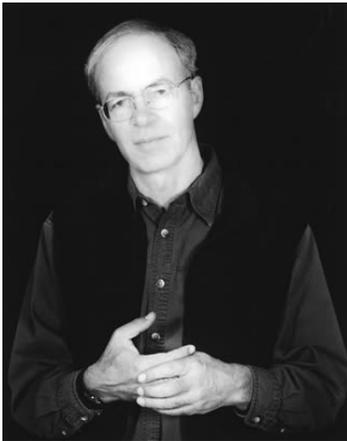
많은 고전적 신학자들은 동물이 단순히 인간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인식하여, 그들이 인간을 봉사하는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대표하는 신학자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의거, 자연적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동물이 인간의 사용을 위해 의도되어졌음을 지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을 죽이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든 틀린 것이 아니라고 토마스는 언급한다.⁴⁾ 그러나 호주 출신으로 현재는 프린스턴대학교에 있는 철학자 싱어(Peter Singer)는 이러한 논의들에 반대하여 평등의 개념을 확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물도 하나의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는 동물의 해방을 제안한다. 그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주제를 그의 책 『동물 해방』에서 심도 깊게 검토하였다.⁵⁾ 동물이 인간과 같은 의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함부로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을 그는 비판한다. 그러한 논리라면, 이성의 능력이나 의식의 수준이 동물보다 낮은 사람들은 동물만큼도 취급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평등은 그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평등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혹자는 동물은 인간과 다른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심각히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인간 내부에서도 존재한다.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 흑인은 백인과 다르다. 또한 민족 간의 차이도 있다. 동물들은 인간과 다른 종이므로 그들의 권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인종적이며 민족적인 차이 또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런 실질적 능력과 종의 차이가 동물의 권리를 묵살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성적 사고 능력이 있느냐, 인간과 같은 종이냐에

3) Steven M. Wise, *Rattling the Cage: Toward Legal Rights for Animals* (Cambridge: Perseus Books, 2000).

4) Thomas Aquinas, *Summa Contra Gentiles*, Book III, Ch. CXII.

5) 피터 싱어, 『동물 해방』, 김성한 역 (서울: 인간사랑, 1995). 싱어는 기독교의 고전적 사상이 동물 보호의 입장에 있어 약함을 이 책에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 기독교사상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아무튼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오늘에 이르러 본격화된 것으로, 이러한 오늘과 같은 주장들이 고전적 사상에서 찾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있지 않고, 그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capacity for suffering)이 있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⁶⁾ 싱어는 이러한 유정함(sentiency)의 정도에 따라, 그 종(species)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달리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말한다.⁷⁾ 어느 존재의 고통이든 우리는 그것을 목살해서는 안 된다. 인간 동료의 느끼는 고통을 인식하는 사람은, 동물이 느끼는 고통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⁸⁾ 물론 이 말은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동물도 그들 나름의 이익관심(interests)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싱어의 논리는 공리주의 철학에 입각한 것으로, 신학적 논의에 근거한 동물보호에 입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싱어의 입장을 염두에 두며, 오늘날 신학에서의 동물 보호의 견해를 설명하여 한다. 필자는 싱어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과 기독교사상이 동물보호에 더 훌륭한 논거를 제공함을 보이려 한다.



〈Peter Singer〉

6) 피터 싱어, 『동물 해방』, 33-66.

7) 피터 싱어, 『동물 해방』, 335.

8) 이러한 싱어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있다. 곧 그는 인간과 동물의 질적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비판은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는 인간이나 동물 그리고 식물의 생명은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식이 없는 태어나 심각한 장애를 가진 신생아에 대한 안락사를 용인하는 태도로 인해 독일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비판이 자신의 입장을 오해한 것이라고 하며 긴 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피터 싱어, 『실천윤리학』, 황경식, 김성동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3), 393ff.]

2. 동물 보호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⁹⁾

1) 구약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견해

구약성경은 동물을 신화화하거나, 주술화하거나, 그리고 신성시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 동물을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창세기 1장 29절은 채식주의적 입장을 그리고 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본문은 식물만이 우리의 음식임을 강조한다. 또한 창세기 6:12, 13, 9:11, 17 등의 말씀들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연대성을 갖고 있음을 언급한다. 인간과 동물이 혈육을 가진 자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에 대한 구원이 위의 구절들에서 함께 서술되고 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방주가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되었음을 표현한다.¹⁰⁾

하나님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물성인 음식으로서의 만나로 만족할 것을 바라셨으나, 백성들은 고기 먹기를 갈망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게 된다(신명기 12:20).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동산에서는 음식을 위해 동물을 살해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훈련된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다니엘 1:12).

하지만 노아 홍수 후 이러한 채식주의적 주장이 후퇴되고 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채 먹지 말 것이니라”(창세기 9:3-4). 노아 홍수 후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기를 먹을 것을 허락하신다. 인간의 타락 후 땅은 더욱 오염되었으며, 이에 더 심한 노동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더 농밀한 음식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성결법전 중의 레위기 11-15장에 나타나는 정하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 또한 생명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강조한다. 돼지고기와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러한 고기들은 맛있는 고기로서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규정이다. 맹수들과

9)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A Christian Theology of Compassion for Anima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20ff.

10) 요나서 4:11 참조.

육식동물들도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고기들을 먹으면 사람들이 맹수같이 사나와질 것을 경계한 것이다.¹¹⁾ 이러한 레위기의 말씀은 노아 홍수 이전의 채식주의적인 삶과 홍수 후의 고기 먹는 것에 대한 허용 사이의 중간적인 입장으로¹²⁾ 인간의 식욕을 억제시키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평화스럽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모세오경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상호 의존됨과 동일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안식일의 규례를 말하며, 안식일엔 사람만이 쉬는 날이 아니라, 동물도 안식하는 날임을 강조한다(출애굽기 20:10). 또한 출애굽기 23:10-11의 말씀은 안식년을 설명하면서, 칠 년이 되는 해에는 밭을 묶어 두어서, 그 밭의 소산을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짐승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언급한다(호세아 4:1-3, 스바냐 1:2-3, 요엘 1:18). 신명기 22:10 말씀은 소와 나귀가 함께 멩에를 매도록 하지 말 것을 말한다. 그 두 짐승은 서로 힘의 세기가 다른 짐승으로 같이 멩에를 매게 될 경우, 힘없는 동물이 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레위기 22:28은 어미 소를 새끼와 함께 도살하지 말 것을 언급한다. 같은 장의 6-7절 말씀은 어미 새를 그 알과 같이 취하지 말라고 하였다.

2) 신약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견해

싱어는 마태복음 8:31-32의 사람에게서 쫓아낸 귀신을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여 돼지 떼를 바다에 몰살시킨 사건과, 마태복음 21:19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사건을 동식물에 무관심한 내용으로 비판하고 있다.¹³⁾ 과연 신약성경은 구약에 비해 동식물에 적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언급하는 바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10:12-13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구약이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이 나타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11은 말한다. 신약성경은 개인영혼의 구원을 강조하므로, 지상의 생명의 보존과 증진에 대하여는

11) 물론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은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12) Walter Houston, *Purity and Monotheism: Clean and Unclean Animals in Biblical Law* (Sheffield: JSOT Press, 1993), 77.

13) 피터 싱어, 『동물해방』, 324-325.

구약성경에서 보다 경하게 다루는 감이 있다. 그럼에도 신약성경에는 동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는 구절들이 많다. 누가 12:6과 마태 10:29의 말씀엔 참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누가 12:24과 마태 6:26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묘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역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창조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하셨음을 보이고 있다(마가 1:12-13).

바울은 인간을 포함한 전 창조물의 구원을 말하며, 하나님의 동물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로마서 8:19-22, 골로새서 1:19-20).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구원을 위해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면서, 율법 중의 음식 규정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로마서 14:2-3의 말씀 등에서, 바울은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가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리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바울은 강조한다(고전 8:13). 이와 같이 신약성경에선 율법보다는 복음을 강조한 나머지, 음식 규정을 따른 동물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약화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3)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재구성함

구약성경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짐승의 희생제사를 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말씀은 일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인간을 위한 더 낮은 가치의 짐승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에 대한 신학적인 반론이 마스컬(Eric Mascall) 및 마슈어(Eugene Masure)와 여키즈(R. K. Yerkes)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¹⁴⁾ 이들은 희생제사를 동물들의 인간을 위한 희생에 앞서, 그것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희생을 통해 동물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파괴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봉헌될 것도 없게 된다. 그러한 희생의 봉헌을 통해 동물은 일개 그들의 보이는 생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열납 되도록 변형되는 것이다. 희생의 제사는 동물의 생명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드러낸다. 그것은 동물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이,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이에 이러한 희생제사를 통해 동물의 생명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며, 동물과 인간의 생명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형태로

14) E. L. Mascall, *Corpus Christi: Essays of the Church and the Eucharist* (Longmans, 1965), 86-93.

변화되는 것이다.

창세기 8:20-22은 이러한 희생제사에 의한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명보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노아의 희생제사는 동물의 생명파괴를 통한 인간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제사가 아니었으며, 그것에 의해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보장받는 의식이었다.¹⁵⁾ 이러한 동물의 희생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동물을 희생하는 제사를 대치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동물 희생 제사가 종식된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제사에 의해 희생되어 왔던 동물들의 고통을 마치게 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인간과 동물의 생명이 약하고 유한한 것임을 나타내셨다. 또한 십자가는 피의 희생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나타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구약의 동물 제사를 죽음과 파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생명과 은총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열납하시고 또한 그것을 변혁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사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셨듯, 우리 인간도 동물을 포함한 자연만물에 대해 우리의 힘을 무한히 행사하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한다.

희생제사의 또 다른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먹는 고기가 모두 희생제사를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희생제사의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음식으로 사용된 것을 성경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곧 구약의 희생제사는 고기 먹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¹⁶⁾ 고전 8장에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특히 언급하는 바, 고대에 있어서는 고기가 음식으로 사용되기 전, 하나의 종교적 의식을 거쳤음을 그 본문은 지적한다. 고대의 이스라엘인들은 제사를 통해, 짐승의 고기를 거룩하게 한 후, 그것을 음식으로 사용하였던 것 같아

15) 21절 후반: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본문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언급하고 있다.

16)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138.

보인다. 그것은 동물제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sacrifice'가 거룩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음을 봐서도 알 수 있다.¹⁷⁾ 유대주의에 있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성스러운 행동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위엄 앞에서만 행하여졌다.¹⁸⁾ 오늘에 있어서는, 짐승의 고기가 도살자들에 의해 공급되지만, 이전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사제 계급이 고기를 공급하는 일에 관여하였던 것 같다. 물론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 그러나 그 의식은 동시에 짐승의 고기를 먹기 전, 그 짐승의 생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 고기를 하나님께 바친바 된 거룩한 것으로 변혁한다는 부수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70년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파괴된 후, 많은 랍비들은 금육주의를 강조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채식주의적인 경향을 보였었는데, 그것은 성전의 제사가 사라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파괴 후의 채식주의적 경향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로 짐 지워지지 않았다. 그들의 생존 또한 중요하였기 때문이다.¹⁹⁾

고대의 사람들은 고기를 먼저 신에게 거룩한 생명으로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고기를 인간이 먹게 함으로, 동물의 생명의 고귀함과 그 동물을 고통이 없이 죽이는 방법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동물을 죽이는 자가 야수화되는 것을 방지한 것 같다. 이에 오늘의 우리도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을 도살하면서, 좀 더 생명에 대한 외경의 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약의 제사의식은 우리에게 동물을 사소한 인간의 유익을 위해 무작정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동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며, 제사를 통해 동물의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져 새로운 생명으로 화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열납될 때, 참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동물의 희생제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동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모형으로, 제사의 희생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우리 인간의 생명은 구원되는 것이다(히브리서 9:13-14).

17)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144.

18)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140-141.

19)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139-140.

3. 동물보호 문제에 대한 기독교 전통의 이해



〈Stephen Webb〉

1) 고대교회의 동물에 대한 신학적 견해

고대교회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창세기에 대한 그의 설교에서, “자연이 우리 인간들에게 준 값싼 채소와 과일 등의 단순한 초식 음식들을 먹고살면서, 그에 만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²⁰⁾ 당시 고대교회의 교부들은 세속의 사상들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은 건강한 식생활이란 차갑고 더운 음식과 습기가 있고 건조한 음식을 균형 있게 먹는데 있다고 한다.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은 영양은 많지만 소화하기 힘든 음식으로 간주되었다. 그러한 육식은 몸을 덥혀 최음제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기는 성적인 욕구와 행위를 증진시킨다고 여겼다.²¹⁾ 그러므로 대부분의 고대철학자들은 이르기를, 선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먹는 것을 절제하고 조절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폭식과 미식은 사회적 비도덕이며, 또한 종교적인 죄로 간주하였다. 이에 의거 당시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검소함과 금식을 몸의 욕정을 극복하며 욕망을 조절하는 것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여 강조하였다.

20) Ambrose, *The Father of the Church*, trans. John J. Savage (New York: Fathers of the Church, 1961), 88.

21) Veronika E. Grimm, *From Feasting to Fasting: The Evolution of a Sin* (New York: Routledge, 1996), chap. 2.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비판한 대표적인 신학 중의 한 명이다. 그의 논문 De Leivnio(금식에 대하여)에서 그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한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포도주와 고기 등을 제외한, 건조한 음식의 생식을 강조하였다. 그는 원래 인간은 채식주의자였다고 한다. 고기를 먹은 것은 홍수 이후의 일로서, 그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언급한다. 그는 다니엘의 예를 들어 채식이 건강에 좋음을 말하고 있다.²²⁾ 이에 그의 반대자들은 그를 유대주의자로 비판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하나님에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몸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클레멘트는 철학자 필로(Philo)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는 과식을 철학자의 적으로 간주하였고, 거룩함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그는 배고프지 않는데도 음식을 더 먹게 하는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을 금하였다. 그는 엄격한 채식주의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고기가 없는 음식을 선호하였다. 그는 사도 마태가 육식이 제외된, 씨와 건과와 채소만으로 식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채식주의자의 선구인 피타고라스(Pythagoras)를 칭송한다. 클레멘트는 피타고라스가 그의 채식주의를 모세에게서 배워온 것으로 여긴다. 모세는 음식에 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있음을 그는 말하였다. 그는 로마서 14:21이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본문으로 여긴다.²³⁾

베네딕트(Benedict)는 병든 환자를 제외하곤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는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성 안토니(Antony)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음식으로 빵과 소금만을 먹었으며, 음료수로는 물만 먹었으나, 피타고라스와 같이 건강하게 장수하였다고 하였다.²⁴⁾

고대 교회의 성자들은 단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동물들과의 접촉을 강하게 추구하면서 본래의 자연적 조화를 다시 회복하려 하였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들짐승들과 함께 지낸 것과 같이, 고대 교회의 성자들도 혼돈 된 도시의 생활에서 벗어나

22)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eds., *The Ante-Nicene Fathers*, vol. 4 (Grand Rapids: Eerdmans, 1956), 104-107.

23)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eds., *The Ante-Nicene Fathers*,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62), 240-241.

24) Athanasius, *The Life of Antony*, trans Roberts C. Gregg (New York: Benziger Brothers, 1980), 36, recited in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30.

광야로 들어가 사탄과 싸우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려 노력하였다. 어떤 은둔자들은 야생의 새나 동물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지내기도 하였다(열왕기상 17: 2-6 참조). 야생의 동물들을 길들여 같이 지냈던 사막의 교부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내려 오기도 한다. 이러한 채식주의는 금욕주의(asceticism)와도 연결되는데, 마니즘, 몬타니즘 및 수도원 운동들이 이러한 금욕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마니즘과 몬타니즘은 이후 교회에 의해 하나의 이단으로 비판되었는데, 그리하여 채식주의 또한 그러한 비판과 함께, 국외자, 극단주의자, 분리주의자, 과격한 비판론자, 이상적 환상기들의 신조와 삶의 스타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채식주의를 일반의 농민들은 따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데, 가난한 농민들의 경우에는 아무튼 고기를 먹을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2) 중세교회의 동물에 대한 신학적 견해

중세에는 금요일을 고기 먹지 않는 날로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동물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고기를 안 먹는 등의 금식의 행위가 일종의 공덕사상과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일종의 미신적 행위로 보았으며,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동물은 인간과 같은 자유를 갖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가 동물에 대한 하나의 도덕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동물은 인간의 복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토마스는 말한다. 이 같은 토마스의 입장은 동물을 자신의 친구로 생각하였던, 성 프란시스(Francis)의 생각에 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성 프란시스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동물들을 죽이는 것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의견이 있음을 먼저 제시한다.²⁵⁾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보존되기를 명하셨다는 것이다. 둘째는 생명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동일하며, 이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을 뺀 것은 살생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모세의 법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 양을 죽이는 것을 사형 죄로 처벌하고 있다.²⁶⁾ 토마스는 이런 세 가지의 반대론에 대해

25) 토마스 아퀴나스의 동물에 대한 견해는,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12ff를 참조하십시오.

26) 이사야 66:3의 말씀을 참조.

비판한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지에 따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감각이 없는 나무나, 이성이 없는 동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토마스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있는 것이 사물의 질서(the order of things)라고 한다.²⁷⁾ 이에 식물이 동물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동물을 인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언급하였다. 특히 토마스는 식물과 동물이 모두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어졌다는 창세기 1:29과 9:3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첫 번째 반대론에 대해 토마스는 동물과 식물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간을 위해 그렇게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생명과 죽음은 우리의 사용을 위해 종속되는 것이다. 두 번째의 반대론에 대해 토마스는 동물과 식물 모두는 이성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것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님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그는 소를 죽이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것의 생명을 범해서가 아니라, 그 소의 소유자의 재산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죄는 살인의 죄가 아니며, 도둑질로서의 죄라는 것이다.²⁸⁾ 우리는 이러한 토마스의 견해를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동물은 정신과 이성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과 그들에 본성에 의거,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재산이라는 어떤 인간의 이해관계가 게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들은 그 자체로 어떤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²⁹⁾ 그는 그의 책 『신앙대전』 (Summa Contra Gentiles)에서 동물은 자연 질서 속에서 인간을 위해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그들을 죽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인간이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틀린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³⁰⁾

그리하여 그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어떤 의무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의 책, 신학대전 Q 65, 3항에서 비이성적인 동물을 우리가 사랑하거나 교제를 갖거나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웃이란 개념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까지 확장될 수 없다. 동물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러한 토마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 토마스는 이르기를, 그 동물이 인간의 사용을 위해 유익할 때에 한해서만 하나님은 그 동물을 사랑하신다고 하였다. 토마스의 생각을

27)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Question 64, Article 1.

28)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Question 64, Article 1.

29)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13-14.

30) Thomas Aquinas, *Summa Cotra Gentiles*, Book III, Ch. CXII.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동물은 이성이 없으므로 어떤 권리도 없으며, 이에 인간은 그 동물들에 대해 어떤 책임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마스의 생각은 13세기 이래 서구의 지배적인 사상이 되어왔다.

3) 근대교회의 동물에 대한 신학적 견해

프리마트(Humphry Primatt)는 1776년 『야생의 짐승에 대한 자비의 의무와 학대의 죄에 대한 논문』(Dissertation on the Duty of Mercy and the Sin of Cruelty to Brute Animals)이란 책을 썼다.³¹⁾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세 스콜라주의 전통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프리마트는 토마스와 같이, 자연적인 ‘사물의 질서’가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은 정신적 존재로서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고 한다. 그는 이와 같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말함과 동시에, 인간과 동물이 고통의 비참함을 함께 갖는다고 하였다. 인간이거나 짐승이거나 모두 고통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이다.³²⁾ 그는 동물도 동정과 정의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위치적 우월성이, 필요 없고 부당한 고통을 동물에게 가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은 전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러한 관대함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³³⁾

18세기의 신학자 존 웨슬리(John Wesley) 또한 채식주의자였으나, 감리교 신자들 중 그가 채식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채널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후 구원을 통해 다시 이러한 역할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구원은 또한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 구원(general deliverance)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채식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은 19세기에 들어와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1809년 카우허드

31) Humphry Primatt, *Dissertation on the Duty of Mercy and the Sin of Cruelty to Brute Animals* (T. Constable, 1776).

32)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16.

33)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17.

(William Cowherd)에 의해 영국에서 바이블-크리스천 교회(the Bible-Christian Church)가 설립되었는데, 이 교회가 정통기독교회 중 제일 처음으로 채식주의를 표방한 교회이다. 카우허드는 고기를 먹는 것이 인간의 타락을 상징한다고 말하였던 스웨덴보그(Emmanuel Swedenborg)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로, 이러한 바이블-크리스천 교회는 당시의 노동자계급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바이블-크리스천 교회는 1817년 카우허드의 추종자인 메트칼프(William Metcalfe)에 의해 미국의 필라델피아로 퍼지게 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채식주의의 신학을 조직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다. 이 교회는 미국에 건강과 섭식에 있어 많은 개혁을 불러일으켰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1859년 미국 채식주의자 협회(the American Vegetarian Society)가 결성되게 된다. 이러한 채식주의운동은 이후 안식교에 의해 이어지는 바, 그들은 육식과 함께 커피, 차, 담배, 술등의 자극성 있는 음식을 금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육류의 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운동은 어느 정도 쇠락하게 된다. 오늘에 있어 술을 금하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있으나, 그들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는 편이다. 최근 들어 섭식과 동물보호의 종교적 중요성에 대해 다시 고찰하려는 신학적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그러나 동물들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전체적 신학적 조망은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4) 현대 신학자들의 동물 복지에 대한 견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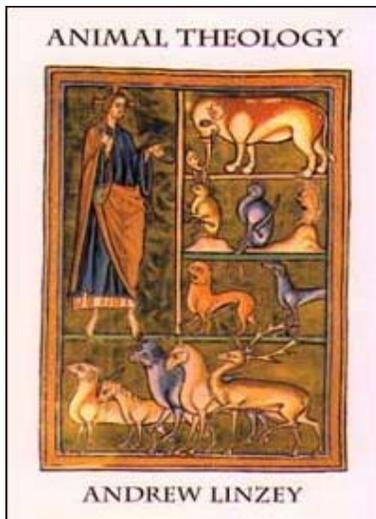
(1)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와 버크먼(John Berkman)의 견해에 대하여

성경에 입각하여 이러한 동물보호의 신학을 전개하는 신학자로 하우어워스와 버크먼이 있다.³⁴⁾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말씀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성경은 인간중심적인 계층적 세계관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전적으로 다른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인간의 다른 동물들과 다른 유일한 목적이, 다른 동물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표현됨을 언급한다. 인간의 다른 동물과의 다른 유일한 목적은 다른 동물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는 것으로서의 위치에 있지 것이 아니며, 다른 동물들을 위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에 있다.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과 동물 사이의 중재(mediation)적 위치이지, 동물에 대한 지배(dominion)의 위치가

34) Stanley Hauerwas and John Berkman,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Chief End of All Flesh,'" Charles Pinches and Jay B. McDaniels, eds., *Good News for Animals?* (Maryknoll: Orbis Books, 1993)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의 하우어워스와 버크먼에 관한 부분은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35-38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 하듯, 하나님과 동물을 포함한 자연 사이를 인간이 중보하고 있다.³⁵⁾ 그들은 동물이 죽여질 수 있음을 말한다. 군인이 국가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이 동물도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동물이 희생되어야 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직 그들은 동물과 인간의 이익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동물이 인간에게 도전할 수 없음을 기독교적 전통에 비추어 말하는 것 같다.³⁶⁾

(2) 린제이(Andrew Linzey)의 동물권의 신학(the theology of animal rights)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영국의 신학자 린제이는, 성경적 전통 속에서 동물권 운동을 균형 있게 전개한 자이다. 그는 싱어가 제시한 평등의 패러다임(equality paradigm)보다는,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관대함의 패러다임(generosity paradigm)을 주장한다. 싱어의 평등의 패러다임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정확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그는 비판한다.³⁷⁾ 그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싱어의 입장을 따르기보다는, 성경에 입각한 동물보호의 신학을 전개한다. 그는 그의 이 분야의 처음의 책, 『동물권:

35) Stanley Hauerwas and John Berkman,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Chief End of All Flesh,'" 64-65.

36)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37.

37)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39.

기독교적 평가』(Animal Rights: A Christian Assessment, 1976)와 두 번째의 책 『기독교와 동물권』(Christianity and the Rights of Animals, 1987)에서 성경과 기독교 전통을 동물권을 옹호하는 지지 자료로 사용하기보다는, 그것들로부터 동물권에 대한 생각을 추론해내려 하였다. 싱어는 동물도 인간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데에서 동물과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연역하였으나, 린제이는 하나님의 관대함(generosity)으로부터 그의 작업을 시작한다.³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고통과 약함을 지셨는 바, 그것에서 하나님의 관대함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필요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과 나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나름의 본유가치(intrinsic value)를 지니는 것으로,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창세기는 적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동의하셨으며, 그들 자체를 궁극적이며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자연을 비롯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려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그 창조 목적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³⁹⁾ 모든 피조물의 가치는 그가 가진 어떤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권리는 하나님의 가치 부여하심에 근거하는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의식 등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린제이(Andrew Linzey)는 이 같은 하나님이 주신 본유가치를 '신의 부여한 권리'(theos-rights)라고 불렀다.⁴⁰⁾

린제이는 하우어워스와 버크먼과 같이, 성경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 인간은 타락하여 동물과의 순전한 관계를 잃어버렸다. 타락 전 아담은 이와 같이 동물을 학대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동물들도 오늘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이 동물들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기쁨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중심적인 삶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동물에 대한 인간의 착취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고통과 약함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유정한 모든 피조물들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⁴¹⁾

38)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30-31.

39)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38.

40)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39.

41) 린제이는 바르트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31-32.]

하나님은 모든 지성이나 의사소통의 기술이 없는 존재들을 향해서도 동정심(compassion)을 보이셨다.⁴²⁾ 인간만이 하나님의 인애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언약 속에서 모든 만물들을 배려하셨고, 이에 모든 만물의 도덕적 지위를 세우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기보다 열등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존재에 위한, 더 높은 위치의 존재들의 희생의 모습을 강조한다.⁴³⁾

이러한 린제이의 입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린제이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셨는가?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동물사용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린제이는 청지기적 책임(responsibility)이란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동물의 가치 및 권리에 대해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일성 곧 동물과의 차이도 강조하는 책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전통은 동물과 다른 하나님과 협력(cooperation)하는 위치로서의 인간의 독특성을 강조한다. 이에 있어 그 독특성은 군림의 독특성이라기보다 청기지로써의 섬김의 독특성이라는 것이 린제이의 주장이다.⁴⁴⁾ 우리 인간은 그러한 전 피조물들에 대해 청지기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동물들의 고통에 대해 응답할 나뉠의 책임을 갖는다. 인간은 다른 종을 섬기는 종의 종(the servant species)이라는 표현을 그는 쓰고 있다.⁴⁵⁾ 그리스도를 닮은 봉사(Christlike service)가 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주됨(Christlike lordship)이란 존재하지 않는다.⁴⁶⁾ 그러나 이 같은 청지기적 언어만을 강조하면, 동물들의 본유가치에 대해 소홀하기 쉽다. 이러한 책임의 언어는 종차별적 욕심과 자기이해(interest)라는 공리주의적 담론으로 왜곡되기 쉬움을 린제이는 지적한다. 그러므로 신이 부여한 권리(theos-rights)라는 언어와 청지기(stewardship)적 책임의 언어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보충적 입장에 있게 된다.⁴⁷⁾

린제이는 이러한 기독교 전통에 의거한 동물보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성육신하신 분이며, 화해자이시고, 구속자가 되신다는 신학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그는 설명한다.⁴⁸⁾

첫째 만약에 창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지닌다면, 인간에 대해서도 어떤

42)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39.

43) 빌립보서 2:5-9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을 보여준다.

44)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45ff.

45)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45ff.

46)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33.

47) Stephen H. Webb, *On God and Dogs*, 40.

48)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101.

가치를 지니는 것이 확실하다.

둘째 이와 같은 창조물의 본유가치는, 인간이 창조물을 효용가치로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다.

셋째 창조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목적과 그 창조물의 신학적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곧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창조물이 어떤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지니고 있다면, 인간은 창조물 가운데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바르트는 이 같은 창조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인간 이외의 피조물]에 대해서 갖는 특별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피조물들은 우주 속에서 그들 나름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동료-피조물 (fellow-creature)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나름의 신비함을 지니고 있다.”⁴⁹⁾ 이 같은 린제이의 창조에 대한 유신론적인(theistic) 이해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모든 동물의 생명이 인류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오류임을 지적한다. 또한 이 세상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인간의 그 자신의 복지에 대한 생각이, 다른 종과의 인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유일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유신론적인 이해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지지 않는, 이 우주의 하나의 관리인(custodian)에 불과한 것이다.⁵⁰⁾



〈Andrew Linzey〉

49) Karl Berth, *Church Dogmatics: The Doctrine of Creation*, vol. III, ed. G. W. Bromiley and T. F. Torrance (Edinburgh: T. & T. Clark, 1958-1961), 78. 특히 바르트는 시편 36:6의 말씀을 좋아하였다.

50) Edward Carpenter et al., *Animal and Ethics* (Watkins Publishing, 1980), 6.

4. 동물보호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반성과 실천

1) 인간은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동물보호의 윤리적 논점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동물을 죽이는 것과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두 가지의 문제이다. 먼저 동물을 죽이는 것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동물을 죽이는 문제는 크게 유정한(sentient) 동물을 죽이는 것과 유정하지 않은 동물을 죽이는 것의 두 가지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유정하지 않은 동물을 죽이는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정한 동물을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라는 데에 회의적이다. 영국의 법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룸이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윤리적인 문제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 채식주의에 대한 논의

동물을 죽이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죽이는 경우, 스포츠에서 동물을 죽이는 문제, 그리고 개발을 위해 일정 지역의 동물을 죽이는 경우이다. 먼저 동물을⁵¹⁾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죽이는 문제는 최근 들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곧 식물로 된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최근의 영양학적 연구는 이러한 도전을 뒷받침한다.⁵²⁾ 채식주의자는 보통의 채식주의자(vegetarians)와 완전 채식주의자(vegans)로 구분된다. 채식주의자들은 계란과 우유 및 우유 제품 등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이런 것들도 먹는 것을 반대한다.⁵³⁾ 채식주의자들은 바다 생물을 음식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싱어(Peter Singer)는 물고기류는 상당히 발달한 신경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한다. 새우 게 등의 갑각류의 고통을 느끼는 정도는 물고기만 못하며, 굴, 대합조개, 홍합 가리비 등의 연체동물 등은 매우 단순한 동물로서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아주 낮다고 하였다. 싱어는 갑각류와 연체동물 사이의 어떤 지점이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정하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⁵⁴⁾

51) "Animals,"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eds.,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28-33.

52) 피터 싱어, 『동물 해방』, 310ff.

53) 피터 싱어, 『동물 해방』, 300-301.

사실 오늘 대부분 선진국의 사람들은 동물성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함으로써 인해, 많은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다. 동물성 식품에 의한 이런 발병은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자제함이 바람직함을 은연중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동물성 식품의 선호는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배고픔을 더해준다. 무엇보다 공장식 농장(factory farm)에서의 동물들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우리가 동물성 식품 섭취를 자제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의 유익을 가져오는 일로 생각된다. 필자는 채식주의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완전한 채식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오늘의 사회생활에 많은 장애를 야기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동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자제하는 중, 동물 보호에 대한 입장을 살려나가는 정도의 실천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물론 이러한 채식주의의 권장이 율법주의나 하나의 공덕주의로 흐르게 못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유롭게 농가의 마당에서 키워지는 동물들에 비해, 공장식 농장에서 길러진 동물들은 면적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높다.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공장식 영농이 많은 이득을 줄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동물들의 건강을 크게 상하게 해, 영농의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가능한대로 육식을 할 경우, 자유롭게 길러진 동물들의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 동물 보호 면에서나 장기적인 유익의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 본다.⁵⁵⁾

(2) 사냥에 대한 논의



다음으로 거론할 문제는 스포츠의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다.⁵⁶⁾ 이런 유익 전통적

54) 피터 싱어, 『동물 해방』, 299-300.

55) 일례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닭을 조롱에 가두고 키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에 닭을 수입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길러진 닭을 들여오는 것이 동물보호의 측면에서나 국민들의 건강의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터 싱어, 『실천윤리학』, 90 참조].

스포츠 가운데 닭싸움, 소싸움, 여우 사냥, 시슴 사냥, 들토끼 사냥 등이 있다. 이런 스포츠들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기는 하다. 이런 동물을 죽이는 스포츠를 정당화하는 주장의 논리는 이렇다. 먼저는 인간의 쾌락을 위해 유정한 동물들의 죽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음으로는 동물 사냥을 통해, 동물의 숫자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냥을 계속 즐기기 위해, 동물이 멸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있어 먼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일일 것 같다. 그리고 동물을 위해 동물을 사냥한다는 두 세 번째의 논리도 구차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동물을 음식으로 취하기 위해 사냥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은 앞의 채식주의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동물을 우리의 음식으로 하려고 사냥을 할 때에는 음식을 위해 필요한 짐승만을 사냥하고, 충을 가지고 사냥할 때에도 단 한 방에 명중시켜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들이 언급되기도 한다.⁵⁷⁾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필자는 과도한 주장을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의 쾌락과 여가를 위해 동물을 아무 생각 없이 사냥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억제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의 사냥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재미로 하는 사냥과 낚시는 동물들을 뜻 없이 괴롭히는 행위이다.

(3) 개발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문제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해로운 동물들을 죽일 때가 많다.⁵⁸⁾ 짐승들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갈등할 때, 우리는 짐승들을 가차 없이 죽인다. 가을 곡식들이 익었을 때, 참새들이 달려들 경우, 우리는 그것들을 종종 처치하곤 한다.

반대로 농사를 위해, 댐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주거지역을 넓히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의 거주지를 침범해야 할 때도 있다. 그들이 우리의 주거영역을 침범할 경우에는 그들을 처치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거주지를 너무나 당당하게 침범한다. 그린벨트의 영역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도 그렇다.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 인간중심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그 그린벨트가 인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지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동물의 중요한 주거지역이란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들과 거주영역을 나누고 있다는 공거(living together)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복지도 중요하지

56) "Animals,"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eds.,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31-32.

57)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114-124.

58) "Animals,"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eds.,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32.

만, 인간에 커다란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동물의 생활권에 대한 배려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1) 공장식 영농(factory farming)의 문제

먼저 공장식 영농은 동물들에게 커다란 고통이다. 해리슨(Ruth Harrison)은 1964년 그의 책 『동물기계』(Animal Machines)에서 영국의 집약적 영농법을 최초로 폭로한 바 있다. 농장주들은 동물들의 복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을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동물의 고기를 가장 값싸게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의 삶은 비참함을 감수해야 한다. 낮은 가격으로 식탁에 고기를 올리기 위해, 동물들은 평생을 답답하고 부적합한 환경 속에서 감금되어 사육되어진다. 동물들은 사료를 고기로 전환하는 기계와 같이 다루어진다. 이득을 올리는 수단이 있다면, 학대는 문제되지 않는다. 동물이 생명을 빼앗는 것 이외도, 그들을 값싸게 우리의 저녁식탁에 올려놓기 위해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거세, 어미와 새끼의 분리, 무리의 분리, 낙인, 수송, 그리고 도살의 시간 등 이 모든 것들에서 동물들의 이익이 무시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스위스에선 암탉을 조롱에서 키우는 체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닭의 복리를 고려하고 있다.⁵⁹⁾ 이에 우리도 어느 정도 동물이 복리를 고려하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제는 고기의 소비가 폭증함에 따른, 공장식 농장의 운영의 불가피성에 있다. 이에 이러한 영농방법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육식을 줄이고 또한 가능한대로 놓아길러진 동물들의 소비를 많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59) 피터 싱어, 『실천윤리학』, 황경식, 김성동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3), 90.

(2) 동물실험(animal experimentation)에 대하여

동물들에 고통을 주는 두 번째의 것은 동물실험이다.⁶⁰⁾ 1970년대의 영국의 라이더(Richard Ryder)나 미국의 프랏(Dallas Pratt) 등의 책에 의해,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동물실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 첫째 기술과 전문성을 익히기 위한 교육적인 실험, 둘째 독성이 예상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실험, 세 번째로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실험이다. 이러한 동물실험에 의해서 야기되는 동물의 고통 받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오늘날의 세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동물해방 운동 측은 동물실험을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같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것은 편견에 따른 학대행위로 규정한다. 물론 수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몇몇 동물을 실험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어도 막연한 결과를 위해 동물이 실험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와 반대되는 견해는 인간중심적 이론으로서 인간이 얼마든지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동물의 복지와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견해이다. 세 번째의 견해는 기독교적 전망이다. 이 견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많은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럼에도 독특하며 수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창세기는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우월성이 동물의 착취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돌보는 의무를 부여하신 바, 이에 우리는 동물을 착취하고 지배하기보다는 그것을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는 동물을 다룸에 있어,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응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영장류와 같은 고등동물들은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되므로, 우리는 실험할 때 가능하면 고통을 덜 느끼는 동물로 실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동물을 실험함에 있어 가능한 한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여 실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해부학 등의 교육을 위해 동물이 실험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모형실험이나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실험 방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부분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⁶¹⁾ 그리고 어떤 실험이 유용한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실험들은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긴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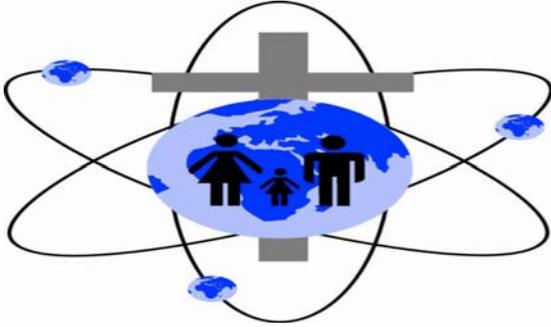
60) "Animals,"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eds.,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33.

61) 생체해부 옹호론(pro-vivisection)과 생체해부 반대론(anti-vivisection)이 있다.

62) 최근 여러 노력의 결과 동물학대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과학적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가 1964년에 비해 반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현재 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화장품과 가정용품 개발을 위해

(3) 유전자 조작 동물(GM animals)에 대하여

스코틀랜드 총회의 〈Society, Religion and Technology Project〉



다음으로 검토하려는 것은 동물의 유전자 조작에 대한 것이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총회는 위원회를 만들어 새 천년을 위한 기술 윤리를 전망하는 리포트를 총회에 제출하게 하였는바, 그것의 일환으로 ‘유전자 조작 동물과 인간과 유전학의 미래’(GM Animals, Humans and the Future of Genetics)라는 제목의 글이 발표되었다.⁶³⁾ 그 위원회는 위 리포트 후미에 하나의 성명서(motions)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유전자 조작 동물과 인간과 유전학의 미래’의 본 성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2. 동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본유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공학자들이 의료적인 유익을 위해 동물을 사용함에 있어, 동물 자신의 복지적 관점에서 한계(limits)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양젖(sheep milk)이나 계란에서 제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축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그것이 동물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서만 윤리적으로 용인된다. 4. 인간의 장기이식을 위해 유전적으로 조작된 돼지의 장기를 사용하려 할 때, 그것을 통해 인간의 현실적 유익이 확실히 보증되는 경우에서만 그것이 용인된다. 이에 있어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실한 유익이 있느냐를 단정할 수 없는바, 그것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 된다. 5. 유전적 연구를 위해 유전적으로 조작된 쥐들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바, 내무성은 이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1975년 미국에서 사냥허가를 낸 사람이 7.7%이었던 것에 비해, 1994년에는 5.9%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동물보호 캠페인 등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http://www.xenos.org/ministries/c&c/c_canim.htm]

63) “GM Animals, Humans and the Future of Genetics: Society Religion and Technology Project,” in <http://www.srtp.org.uk/srtga014.htm>.

일하는 기관들을 잘 선별하여 면허증을 줌으로써, 그러한 일들을 통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쥐들을 유전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한(refining), 축소(reducing), 대체(replacing)의 세 가지 원칙(3 R's Principle)을 염두에 둘 것을 그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먼저 가능한대로 쥐의 실험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실험기술을 사용하고, 다음으로 그것의 유전자 간섭의 범위와 실험량을 축소하며, 마지막으로 쥐 등의 동물들을 사용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대체방법을 고안하는 것 등의 원칙이다. 6. 내무성은 의학적 연구를 위해 영장류(침팬지, 고릴라 등)들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일을 허락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7. 중앙정부는 긴급성을 가지고 인간의 재생산적 복제(human reproductive cloning)를 금지하는 일차적인 법 제정을 할 것과, 줄기세포(stem cell) 연구에 있어 핵치환 복제 방법을 강력히 금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8. 인간과 동물의 잡종적 배아(hybrid human-animal embryos)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핵전이의 방법(nuclear transfer cloning methods)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9. 생태적 문제에 대해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이러한 환경 문제를 위해 중앙정부가 세금 수입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위와 같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교회는 오늘의 생명공학에 있어서의 윤리문제를 염려하며, 그에 대한 교회의 대처방향에 대하여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언급한다. 동물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름의 본유가치를 지니므로, 우리는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일종의 한계를 갖게 된다. 모세 오경은 우리에게 동물을 피체 먹지 말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과 같이 삼지 말라는 등의 명령을 하시며, 동물에 대한 사용 한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부연하여, 양젖에서 의약품을 만드는 것은 대개 약간의 단서조건 속에서 용인을 하는 입장이다. 이종간의 장기 이식을 위해 돼지 속에 장기를 배양 이식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상당히 장기간 연장하지 않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인간이 동물을 음식과 의복과 운송수단을 사용한다는 것과, 장기이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 선상의 내용이 아니다. 후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살아있는 동물에 고통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확실시되는 인간의 유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통제함이 없이 동물을 그런 일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영장류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거의 용인하지 않는 추세임을 우리는 이 리포트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느 정도 안전함이 확신되는 상황에서만 연구를 진척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도 실험실에서 많은 동물들이 죽고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동물들의 고통을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이 지구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으며, 그것을 위해 우리 인간들을 만물의 청지기로 하나님은 세우셨을 것이다.

1992년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국’(the European Patent Office)에서 유전적으로 조작된 쥐(the oncomouse)에 대한 특허를 내 준 이래 동물에 대한 특허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⁶⁴⁾ 요즈음엔 동물만 아니라, 식물의 종과 유전적 정보도 특허의 대상이 되어 각 나라는 이러한 종들을 자국에서 특허를 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동식물의 종과 유전적 정보들을 사유화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로, 그렇게 동식물들의 유전적 정보가 인간의 특허의 대상으로 될 경우, 자연물들에 대한 인간의 극심한 착취가 예상된다. 개개의 동물과 식물들이 인간의 재산권으로 등록될 수는 있어도, 약간의 유전적 조작을 인간이 하였다고 하여, 그 종 전체에 대한 특허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및 통치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각 국의 동식물에 대한 특허경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전 피조물은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인간의 그에 대한 사용과 소유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동물에 대한 사랑과 해방을 위해, 우리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전의 노예해방이 노예들의 비참한 삶의 현실에 대한 보고에서 힘을 얻었듯, 우리의 동물권 운동도 이런 오늘의 동물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제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우리 동물들의 실험실과 공장식 농장과 투우장과 도살장에서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 우리는 의학의 발전과 인간의 편의성 추구라는 미명 하에, 동물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고 있으며, 그러한 짐의 무게가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느껴야 할 것이다.

64)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144.



5. 마치는 글

린제이는 동물권(animal rights)에 대한 이론들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⁶⁵⁾ 인간중심적 이론(humanocentric theory), 계약주의적 이론(contractualist theory), 인도주의적 이론(humanitarian theory), 복지 이론(welfare theory), 권리 이론(right theory), 관대함의 이론(generosity theory)의 여섯 가지이다. 인간중심적 이론은 인간이 동물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동물의 도덕적 위치도 부정한다.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여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학대가 인간을 난폭하게 하고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토마스의 입장을 통해 대변되어 왔다. 또한 교황 피우스(Pius) IX세도 이런 견해를 가졌었다. 다음의 이론은 계약주의적 이론인데, 권리와 의무는 오직 계약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해링(Bernard H ring)이 이러한 이론을 취하였다. 그는 비이성적인 존재들은 이웃 사랑으로서의 기독교적 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롤즈(John Rawls)도 동물을 정의의 영역밖에 있는 존재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로 인도주의적 이론가들은 인간은 유정한 존재들에게 필요 없는 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친절함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65) Andrew Linzey, "Animal Rights," Paul Barry Clarke and Andrew Linzey, eds., *Dictionary of Ethics, Theology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1996), 29-33.

또한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들보다 열등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인애와 박애의 정신을 보여야 한다고 이 이론을 주장한다. 이런 입장은 1824년 영국의 성공회 신부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RSPCA(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의 이념이기도 하였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프리마트(Humphry Primatt)의 입장도 이러한 견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네 번째로 복지 이론이 있다. 약한 복지 이론은 인본주의적 이론과 별 차이 없다. 그러나 싱어 등에 의해 제기된 공리주의 복지 이론에 의거한 입장은 그것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그는 유정(sentiency)한 존재들 모두에 평등을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존재들의 고통을 도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싱어의 입장을 뉴먼 추기경(cardinal Newman)이 신학화 하였는데, 그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무죄한 동물에 고통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죄한 그리스도에 고통을 가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싱어는 적은 수의 동물의 희생을 통해 많은 수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러한 동물실험 등은 용인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다섯 번째로 권리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동물을 목적적 가치의 대상으로 보아야지, 어떠한 것의 도구적 가치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모든 생명의 주체들은 목적적인 윤리가치로서의 본유가치(inherent value)를 지니는 것으로, 나름대로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떠한 상관이 없이, 그 각 개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이 이론을 설명한다. 이 이론의 대표자는 리건(Tom Regan)인 바, 그는 1년이나 그 이상 된 포유동물들은 인간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리건의 입장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유아나 태아의 인권을 약화하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대함의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린제이(Andrew Linzey)의 기독교 신학에 기초한 이론으로서 유신론적 견지에서 동물보호의 문제를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 보호의 면에 있어 앞선 국가는 아니다. 재작년 오스트리아에선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승격시킨 법률이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발표되었다.⁶⁶⁾ 이 법안은 하루 1회 이상 산책할 개의 권리, 새에게는 반드시 암수가 함께 새장에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표명한다. 악어는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풀장이 설치된 곳에서만 거주할 권리 및 애완용 두더지, 다람쥐는 숨을 수 있는 구멍이 설치된 우리가 있어야 함을 언급하는 것 외, 동물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66) <http://www.oneness.pe.kr/html/private/동물실험.htm>.

물론 우리에게도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동물보호의 선진국들이 법에 비할 때, 상당히 부족한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의 법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는 등, 법의 강제력이 약한 편이다.⁶⁷⁾

우리와 비슷한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하나의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그 행동에 따라, 또한 우리 사람 자체도 물건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만연된 비인도적 행위들은 이러한 생명체들을 물건시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약간의 의역을 하여 소개하고 싶다. “그러므로 영과 몸, 사람과 짐승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인간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람 중에는 그들의 몸으로 하는 일 이외에 더 나은 어떤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바, 나는 그들을 본성적으로 노예라도 말하는 것이다.”⁶⁸⁾

언제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상의 어떠한 생명체도 무참하게 짓밟혀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싱어를 비롯한 학자들이 동물의 권리에 대해 말할 때, 그 동물들이 인간과 동등한 인격체임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물과 인간의 이해가 상충할 때, 인간에 우선성이 있음이 확실하다.

린제이(Andrew Linzey)는 그의 최근의 책에서, 동물보호의 영성을 고양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다.⁶⁹⁾ 먼저 우리 기독교회의 예배(worship)를 통해, 우리는 동물보호의 정신을 고취할 수 있음을 그는 말한다.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에게 동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인간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간을 위한 동물의 사용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복음(gospel)의 내용은 우리의 생태영성을 고취한다.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다는 설교의 메시지를 듣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의 강단에선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모든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사역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고 있다.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배타적으로 인간만 사랑하시고 나머지의 피조물들에 대해선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주장은 이상한 것이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단지

67) <http://www.intopet.co.kr/law/law.htm>.

68) Aristotle, *The Politics*, ed. by T. A. Sinclair (Penguin Books, 1985), I, v, 68-9, recited in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140.

69) Andrew Linzey, *Animal Gosp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140-152.

인간의 이익관심과 요구와 유익만을 위하여 축소시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확장적이며(expansive) 창조적인(creative) 사랑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인간만을 위한 사랑에서, 모든 것을 향한 사랑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는 기독교의 사역(ministry)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동물에 대한 사랑의 영성을 키울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이란 한 종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만물을 향해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주적인(cosmic) 것으로, 그에 응하는 우리의 사역도 그런 사역이 될 필요가 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로새서 1:19-20).

〈구제역에 즈음하여 돌이켜보는 동물보호를 위한 실천적 제안들〉

1. 오늘과 같은 구제역의 상황에 즈음하여, 창조와 구속에 대한 신앙과 동물보호에 대한 신학적 반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2.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귀중하다는 생명신학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3.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앞에서의 본유가치를 인정하며, 인간의 자연에 대한 청기지적 사명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4. 자연친화적 영성의 형성과 동물들의 사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동물학대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6. 동물의 고통에 대한 배려, 곧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사육과 도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 오락으로서의 사냥과 낚시 및 투우, 투계, 투견 등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8. 동물실험과 동물의 유전자 조작은 동물들의 고통을 고려하며 신중히 하여야 한다.
9. 육류 소비의 억제와 정의로운 소비로서의 에코 달걀과 같은 친환경 식품의 소비가 필요하다.

10. 공장식 영농의 축소 유도에 관심을 가져야 함과 동시, 예전의 환경친화적 축산 방식의 장점을 이해하며, 한국의 기후와 토양에서 재래종의 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요청된다.
11. 불법사냥, 밀도살 등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및 동물들의 주거 권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12. 애완동물들에 관한 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동물보호법'의 정비와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13. 각 교단 총회 산하 환경위원회 속에 동물보호 문제를 다루는 전문부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동물들과 함께 드리는 야외예배 등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요청된다.
15. 동물과 접할 수 있는 교회정원의 조성, 교회 내 수족관을 만드는 것, 교회 마당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물고기들을 키우는 것 등을 통해 사람들이 동물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16. 무엇보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죄 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땅에 미친 이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도록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구제역 피해농가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세미나**

구제역 축산농가를 위한 심리적인 지지 매뉴얼

최 의 헌 목사(연세로DEM정신과 원장)

구제역 축산농가를 위한 심리적인 지지 매뉴얼

최 의 현 목사(연세로템정신과 원장)

어떤 재난이든 잇따른 심리적 고통이 상당한데, 구제역과 관련된 고통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와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재앙은 그 재앙 자체가 큰 충격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사고나 성수대교 참사, 지진이나 쓰나미, 911테러, 등은 그 재앙 자체가 우리를 압도한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눈앞에 보이는 기름때를 보면 누구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런데 구제역은 이와 다르다. 당장의 재앙이 눈앞에 현실로 보이지는 않는다. 의심증상이 있어서 신고를 할 때만 해도 설마 하게 되는 정도이다. 그런데 막상 구제역으로 판명이 나면 살처분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온다. 마치 실제 재앙은 조용한 것 같은데 그 재앙을 막는다고 하는 처리가 오히려 더 재앙에 가까운 것이다. 암 신고를 받는 것이 이와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암은 그 병의 고통이 치료의 고통보다는 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구제역과 차이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구제역은 심리적으로 매우 복잡해진다. 일반적인 재앙은 누구 탓을 하기 어려워서 모두가 약자로서의 실존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구제역은 자꾸 누구 탓을 하게 된다.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결정이나 축산정책, 살처분을 실제로 감당하는 사람과의 갈등, 살처분의 장소 마련, 보상, 이웃과의 미묘한 갈등, 등등에서 상황은 점점 꼬여간다.

목회자는 구제역의 피해를 입고 살처분의 고통을 감내한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지내온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일이 새삼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크고 복잡한 만큼 목회자는 그동안의 태도보다 더 신중하고 전문적인 자세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할만한 몇 가지 지침을 이 매뉴얼에서 제공하려고 한다.

이 매뉴얼은 이제 첫 선을 보이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아직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더 나은 매뉴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매뉴얼을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보다 충실한 의문이나 제언을 통해 이 내용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적극적인 의견을 기다리며, 함께 만들어가는 매뉴얼이 되기 바란다.

1. 일반적인 심리 반응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비슷한 마음의 과정을 밟는다. 다행이 이러한 마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마치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복잡하던 여러 감정적인 과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안정을 찾는다. 그것이 사람이 가진 정화의 힘이다. 하지만 그 힘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다양한 반응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반응들이지만 한 번 구별해서 나열해보도록 하자.

(1) 망연자실

일반적인 재앙이든 구제역과 같은 특수 상황이든 분명한 충격이 닥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충격은 우리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고 눈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 털썩 주저앉게 하고 머릿속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텅 빈 것처럼 멍할 뿐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것이니 무슨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우스울 뿐이다.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려면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멍한 시간이 얼마 갈지는 각자마다 다를 것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어서 언급되는 다양한 반응이 한꺼번에 혹은 연쇄적으로 벌어지는데 그 순서와 정도는 일정하지 않다.

(2) 감정적인 동요

재앙이 닥쳤을 때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정신이 드는가 싶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통증의 인식일 것이다. 신체적인 통증에서부터 마음의 통증까지 다양한 고통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그 고통은 비단 자신의 것만은 아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이 구분되지 않고 같이 일어나서 너와 나의 경계가 혼란스럽다. 자식과 같이 키워온 동물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감정이입과 연민이 지나치면 건잡을 수 없는 고통의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 나올 줄 모른다.

(3) 둔화

둔화는 감정적인 동요를 막기 위한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다. 더 이상 남의 고통을 보거나 듣거나 하려 하지 않는다. 동물들을 생명체로 보지 않고 그들 하나하나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소들’, ‘돼지들’로만 여긴다. 더 이상 감정의 끈이 연결된 관계로 여기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살처분을 맡은 공무원들도 이러한 동요와 둔화를 왔다갔다하며 자신을 추스르려고 안간힘을 쓴다.

(4) 분노

조금 한 숨을 돌릴만할 때 심적으로 가장 괴로운 문제는 분노일 것이다. 분노는 흔히 불로 상징된다. 그러므로 분노는 자신을 태우고 주변을 태운다. 분노는 늘 대상을 찾는다. 무능력한 정부와 공무원들, 병을 옮겨왔다고 여겨지는 의심스런 여러 원인들, 주변의 시선, 애꿎은 주변에 이르기까지 분노를 발산할 대상이 여기저기로 옮겨간다. 일반적인 재앙은 주변이 다 같이 겪으므로 공동전선이 형성된다. 그런데 구제역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몇몇 농가에 국한되므로 “왜 하필이면 내게..?”라는 억울함과 납득하기 어려운 마음이 소용돌이친다.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폐암에 걸렸을 때 주변의 골초들도 걸리지 않는 이 병이 하필이면 내게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분노의 특징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인이 어떡하든 불이 나면 그것이 주변을 다 태우고 나서야 꺼지는 것과 흡사하다. 분노의 불을 끄려는 시도와 노력이 매우 중요할텐데 이에 대해서는 3.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5) 자책

자책은 분노와 특징이 같으나 다만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다. 즉 자책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이다. 분노와 같이 강렬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매우 다르다. 풀이 죽고 시들해지며 우울하고 무기력해진다. 모든 것이 다 자기 탓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자살의 충동이 생기기도 한다.

(6) 무가치감, 절망

축산인은 축산을 하고 있을 때 자기다운 것이다. 그런데 구제역이 생긴 후로 돌연 실직한 중년의 가장과 같이 그는 자신이 설 자리를 잃은 사람이 된다. 명예와 자긍심이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값지게 여기지는 않다고 해도 심지어 평소에 자기의 하던 일을 비천하게 여기던 사람이라고 해도 막상 ‘일이 없는’ 신세가 되면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된다. 보상은 이러한 문제를 더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보상은 주로 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돈이면 무엇이든 될 줄 알았다고 해서 이젠 돈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돈은 과거를 회복시키지 못한다. 새로운 생활을 적응하는 데에 돈이 큰 힘을 줄 것 같지만 막상 부딪혀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된다.

2. 병적인 심리 반응

앞서 정리한 반응들은 비록 괴로운 과정이나 어느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정상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다. 목회자들은 정상적인 반응 속에서 비정상적인 병적 반응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위험하다 싶은 사람들을 가려내고 그들이 정신과 진료와 같은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1)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정신과에서 말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서의 ‘외상(trauma, 충격)’이란 표현은 사람의 죽음 혹은 신체적 온전성의 위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구제역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외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진단에 의하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외상이 있을 후 세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 (한 달 이내에 벌어지는 경우는 급성스트레스장애라는 진단을 붙인다.) 특징적인 증상 세 가지는 외상의 재경험, 회피와 둔화, 각성도 증가이다.

외상의 재경험은 마치 그 충격이 실제로 다시 경험하는 듯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회상되거나, 눈앞에 그런 현상이 펼쳐지는 이른바 ‘플래시백’ 경험을 하거나, 악몽을 꾸다. 그래서 충격이 자기 안에서는 계속 반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회피와 둔화는 앞서 언급한 정상적인 둔화 반응보다 훨씬 심각하여 현실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생각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관련된 장소와 사람, 등에 대해 자기 회피하게 된다. 각성도가 증가하는 경우엔 사소한 것에도 쉽게 깜짝깜짝 놀라며 예민해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진다.

(2) 우울증

우울증이 우울하고 울적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울증을 반만 알고 있는 것이다. 우울증은 기분만 아니라 몸에 작용하므로 생활리듬이 우울의 현상에 빠진다. 그렇게 되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수면과 식사의 리듬이 깨진다. 매사 의욕과 흥미가 없어진다. 병적으로 고려할만한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아는 데 가장 쉬운 기준은 ‘전 같으면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좋아졌는지’를 따져보고 그러한 자기해결책이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병적인 우울증에서는 그러한 자기해결책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더 실망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 정도라면 ‘병적인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으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

(3) 자살

자살의 생각은 제일 많이는 우울증과 동반된다. 하지만 우울증이 없이도 죽고 싶은 생각에 빠질 수 있다. 어떤 이는 희망이 도무지 없다고 판단할 때 자살의 생각이 싹튼다고 했다. 이 경우 자살만이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생각 자체를 너무 안 될 것처럼 몰아가선 안 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보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죽고 싶은 사람 중 일부에서 그 생각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행가능성, 즉 심각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4) 알코올중독

술은 참으로 이중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고통의 상태에서 술을 찾는다. 술은 고통을 잠시 잊게 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과 유대감을 만들어주며 잠도 잘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매우 좋은 방편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본색을 드러내어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만들고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분열을 조장하며 잠도 설치게 한다. 그래서 술의 양은 점차 늘고 결과는 점점 더 나빠지게 된다. 오죽하면 ‘술의 노예’ 혹은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표현이 나왔겠는가?

3.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목회자의 대응 자세

(1) 대응의 중요한 원리

고통을 당한 자와 함께 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성경이 있다. 바로 ‘욥기’이다. 욥의 세 친구는 우리가 재앙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태도를 조심해야 하는지 잘 알려준다.

세 친구가 보인 초기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욥 2:12-13).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에 함께 하였고 욥이 입을 열기까지 한 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로 일주일이나 있었던 것이다. 대단한 공감이다. 하지만 욥이 입을 열자 상황은 달라진다. 욥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무언가 판단을 잘못 하셨다는 꼴이 되었다. 욥의 세 친구는 그런 욥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욥의 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욥을 설득하려 했다. 즉, 친구들은 이제 욥과 함께하지 않고 욥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세 친구의 변론을 듣던 엘리후가 나중에는 욥과 친구 사이에서 한 수 거드는데 얼핏 보면 세 친구의 논조와 흡사해 보이기도 하고,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엘리후의 논조는 세 친구와 하나님의 중간쯤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엘리후가 했던 말 한 부분을 통해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욥 36:15-19). 이 부분은 확실히 세 친구와 논조가 다른데, 엘리후는 지금의 환란이 욥의 죄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환란에서 분노하고 부르짖게 되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원인보다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대응의 폐해를 ‘뇌물’로 비유한 것이 흥미롭다. 뇌물은 양심의 눈을 서서히 멀게 한다. 욥의 초기 한탄은 나를 일리 있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지속되면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유념해야 했다. 중요한 것은 세 친구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들여다보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욥에게 변론하다보니 오히려 욥이 자기 생각에 더 빠지게 만들어서 욥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성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목회자들도 이 점에 유의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처음엔 참 좋게 출발했는데 교류를 해나가고 대화를 하다보면 어느새 신앙지도자의 관점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마치 하나님 편에서 옳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그들을 공감하고 하나 되는 자리에서 점차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미리 교류와 대화를 예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2) 흥분하는 사람

- 흥분하는 예: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처리도 안하고, 그러면 살처분 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뒤처리를 저보고 하라는 겁니까? 빈 축사를 바라보는 것도 허망한데 어떻게 집 앞에 그것을 문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차라리 빨리 백신을 돌리던가, 상황 다 지나서 왜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겁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전염병 만든 사람마냥 취급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 섬기는 분인데 이 정부가 그렇게 무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말입니다.” (기독교나 현 정권을 두둔하는 입장이 말하는 사람의 반대편에서 풀이 될 수 있다.)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상황을 잘 보고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한 편 옳은 대응 같지만, 감정을 너무 빨리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그 사람들이 잘못했네요. 그들을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힘과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치우치게 편을 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 바람직한 대응의 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지금의 정부의 방침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00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판단을 하기보다는 상대의 태도를 묘사하고 그의 입장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고 공감해주는 표현을 쓴다. 중요한 점은 타당하다는 기준이 듣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한 당사자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너무 자극이 되지만 않는다면 저는 00님 말씀을 더 듣고 싶네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화를 낸다고 무조건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해서 스스로 누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야기를 더 펼쳐보는 것이다. 막상 이야기를 더 시키니까 흥분만 증가될 뿐 가라앉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물론 중간에 이야기가 확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초반에 어떻게 모르면서 무조건 이야기를 막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혼자 옆에 받쳐서 혼잣말을 하게 되면 감정이 마냥 올라가지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흥분도 자중하게 된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비단 흥분하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3) 슬퍼하는 사람

- 슬퍼하는 예:

“재들은 저의 분신이에요. 어떻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애네들을 보낸단 말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렇게 허망하게 다 잃어버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루종일 눈물만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잠도 안오고, 모르겠어요...”

-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라도 안 그러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고유한 고통으로 접근하지 않고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을 닫히게 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셔야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지와 격려보다 앞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음을 너무 빨리 정리하게 하려는 압박이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보다 더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이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여기는 당사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 바람직한 대응의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제가 조금이나마 함께 헤드리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상대의 심정도 헤아리고 나의 위치도 상대에게 각인시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렇게 괴로우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우울의 심각도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병적인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생활에서 받는 영향들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혹시 너무 낙심하고 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나요? (우울의 정도가 깊어 보이지 않아도 자살에 관한 질문은 꼭 하는 것이 좋다. 죽음을 생각에 둔 사람이라면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적잖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그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두고 그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자살시도를 감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4)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

- 혼란스러워 하는 예:

“어떻게 하루하루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생각도 왔다갔다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음도 정리가 안 되고, 하루에도 생각이 몇 번씩 바뀌죠.”

“이 참에 싹 정리하고 여기를 뜰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동안 여기서 해왔던 고생과 보람을 생각하면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네요.”

-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예:

“생각이 복잡할 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시간이 해결해주니까 일단 아무 생각 말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이들에겐 적절한 조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부족하나마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생각을 펼쳐보는 게 좋다.)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정신이 없어서 어떡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가급적 빨리 마음을 정하세요.” (상대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의도는 좋다. 하지만 의도는 전달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에게 어떤 자세를 갖도록 압력을 주는 것으로 전달되기 쉽다.)

- 바람직한 대응의 예:

“저만 해도 이런 시점에서 마음이 쉽게 정해지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00님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음이 안정되어서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는 제 마음만큼은 분명합니다. (앞의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의 예와 반대로, 이 경우는 상대를 향한 나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두 가지 생각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실텐데 무엇이 옳으나 무엇이 중요하냐를 말하기 전에 각각의 생각을 모두 충실히 표현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두 가지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보세요.” (혼란스러운 것이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의 부조화로 집중되어 있다면 두 극단을 각각 표현하게 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혼란스러운 게 맞지만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을 회상하면서 그때 정말 정신이 없었다고 말할 때가 오겠지요.” (혼란을 현재의 시점으로 규정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희망의 관점을 붙여넣는다.)

(5) 낮이 나간 사람

- 낮이 나간 예:

“어제 송아지가 우는데, 그게 그저께 우리 애아빠가 속이 상해서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마음이 복잡해서 친구가 왔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말이 횡설수설하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 (침묵과 부적절한 행동 및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예: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 잘 압니다. 지금 화가 나서서 그러시는 거죠.” (상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보려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애매한 경우에서 상대의 마음에 대해 선부르게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겠어요. 좀 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못 알아들을만한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서로 교류를 못하겠다는 단절의 의미로 전달되어서는 안 되며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 바람직한 대응의 예:

“말보다 중요한 게 감정 아니겠어요. 지금 어떤 마음인지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굉장히 힘들겠다는 건 충분히 전달이 되네요.” (말 외에도 의사소통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혼란스러움이나 부적절함도 고통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누가 함께 계시나요?” (자기조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객관적인 상태를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6) 종잡을 수 없는 사람

- 종잡을 수 없는 예: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상을 받으면 차라리 일이 잘 풀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생각 외로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임.)

“목사님,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더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뭔가 내놓고 구호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이 여겨짐.)

“전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키는 대로 제가 따를 테니 지시만 해주세요. (매우 의존적이고 순응적인 모습을 보임.)

-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표현은 내면의 의도와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정작 그 생각을 탐색해보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에 동조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경우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 바람직한 대응의 예:

“글쎄, 00님의 진심이세요?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데 말이 그렇게 나오시는 건 아닌가요?” (의심하는 어투여서는 안 된다. 정말 그의 속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종잡을 수 없는 표현과 태도가 나올 때엔 그 복잡함을 다 풀어서 해결하기 벅차다. 우선은 말하는 그와 듣는 나 두 사람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두 사람이 공감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제가 듣기에는 말씀하시는 것 말고도 어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가늠이 안 되는군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듣는 나로서 애매하다는 솔직한 표현이 상황을 명료하게 하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하도록 시키면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약간 뉘앙스가 바뀌기도 한다. 그런 차이를 잘 고려해보면 상대의 마음을 보다 잘 헤아리게 될 수도 있다.)

4. 핵심 정리

(1) 재앙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는 일반적인 것과 병적인 것이 있다. 일반적인 것과 병적인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병적인 부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특별히 일상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있거나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2) 판단하고 지도하는 관점보다는 함께 하고 이해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목회자는 하나님 계로 인도하려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옴의 세 친구와 비슷하게 공감에서 멀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상대의 간단한 말 안에서 속단하지 말고 가급적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충분히 생각과 감정이 나오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과 자세히 말하도록 격려하고 진지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4) 목회자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픈 위치를 유지하면서 상대에게 긍정적인 기대와 안정적인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강요적이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별첨 1. 주요우울삽화 DSM-IV 진단기준

A. 다음의 증상 중 5가지(또는 그 이상)가 동일한 2주일 기간 동안에 나타났고 과거의 기능과 차이를 나타냈다 ; 적어도 하나의 증상이 (1) 우울한 기분 또는 (2) 흥미 또는 즐거움의 상실이다. [주: 일반적 의학적 상태,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망상이나 환각 때문에 명백하게 생긴 증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1) 거의 매일 또는 거의 하루 내내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 보고(예: 슬프거나 공허하다)나 타인에 의한 관찰(예: 눈물을 글썽인다)에 의해 나타남. [주: 소아와 청소년에서는 이차극적 기분(irritable mood, 짜증)일 수 있다.]

(2) 거의 매일 모든 것 또는 거의 모든 것, 거의 하루 대부분의 활동에서 현저히 감소된 흥미(주관적 설명 또는 타인에 의한 관찰로 나타나듯이).

(3) 식이요법하지 않는 중에 의의 있는 체중감량과 체중증가(예: 1개월에 체중의 5% 이상 변화) 또는 거의 매일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주: 소아에서는 기대되는 체중증가가 안 되는 것을 고려하라.]

(4) 거의 매일 불면 또는 과수면.

(5) 거의 매일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체(단순히 안절부절 못함 또는 느려진다는 주관적 느낌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관찰 가능한).

(6) 거의 매일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7)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망상적일 수도 있다)(단순한 자기 비난이나 아픈 데 대한 죄책감이 아닌).

(8) 거의 매일 사고와 집중능력의 감퇴 또는 결정곤란(주관적 설명 또는 타인에 의해 관찰되듯이).

(9)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죽음에 대한 공포 아닌), 구체적 계획이 없는 반복적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을 자행하려는 구체적 계획.

B. 증상은 혼합삽화의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C. 증상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통을 일으키거나 또는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손상을 일으킨다.

D. 증상은 물질에 대한 직접적 생리적 효과(예: 남용약물, 치료약물) 또는 일반적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기능저하증) 때문이 아니어야 한다.

E. 증상은 사별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즉,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라면 증상은 2개월 이상 지속되며, 현저한 기능적 손상, 무가치감에 병적 집착, 자살의도, 정신병적 증상, 또는 정신운동지체의 특징이 있다.

별첨 2.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DSM-IV 진단기준

A. 개인은 다음의 두 가지가 존재하는 외상(trauma, 충격)적 상황에 노출되었다 :

(1) 개인은 실제적인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을 느낀 사건 또는 사건들 혹은 심한 부상,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위협을 경험, 목격하거나 직접 직면한 적이 있다.

(2) 개인의 반응은 강한 두려움, 무력감, 혹은 공포를 포함한다. [주: 아동은 안전부절하거나 혼란스러운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

B. 외상적인 사건은 계속해서 다음의 하나(또는 그 이상)로 재경험된다 :

(1) 영상, 사고들 혹은 지각들을 포함하는 사건에 대한 반복되고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회상 [주: 어린 아동의 경우 그 외상의 주제들이나 측면들이 표현되는 반복되는 놀이를 하기도 한다.]

(2) 그 일에 대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꿈을 꾸다. [주: 아동의 경우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공포스런 꿈을 꾸기도 한다.]

(3) 외상적인 사건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느낌(그 경험이 되살려지는 기분, 착각, 환각, 그리고 해리적인 플래시백(flashback) 삽화를 포함하고, 이런 것은 각성상태 또는 중독상태에서 생길 수 있다) [주: 어린 아동의 경우 외상-특이적인 행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4) 외상적인 사건의 일면과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내부 혹은 외부적인 단서에 노출될 시의 강한 심리적 고통

(5) 외상적인 사건의 일면과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내부 혹은 외부적인 단서에 노출될 시의 생리적인 반응

C.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 회피와 일반적 반응의 둔화(외상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 다음의 세 가지(혹은 그 이상)로 나타남 :

- (1) 외상과 관련된 사고, 느낌, 혹은 대화를 피하려는 노력
- (2) 외상에 대한 회상을 일으키는 활동들, 장소들, 혹은 사람을 피하려는 노력
- (3) 외상의 중요한 측면을 회상할 수 없음
- (4) 중요한 활동들에 대한 흥미 혹은 참여의 현저한 감소
- (5) 다른 사람에게서 동떨어지거나 격리된 느낌
- (6) 제한된 범위의 감정(예: 사랑이란 느낌을 가질 수 없음)
- (7) 단축된 미래에 대한 감각(예: 직업, 결혼, 자녀 또는 정상적 수명에 대해 기대하지 않음)

D. 증가된 각성에 의한 지속적 증상들(외상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 다음의 두 개(혹은 그 이상)로 나타남 :

- (1) 입면이나 수면 유지의 곤란
- (2) 흥분성 혹은 분노의 표출
- (3) 집중장애
- (4) 과도각성
- (5) 과도한 놀람반응

E. 이 장애(기준 B, C, D의 증상)의 기간은 한 달 이상이다.

F. 이 장애는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들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킨다.

다음을 명시하십시오 :

급성: 증상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만성: 증상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늦은 발병: 스트레스 후에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증상이 시작



**구제역 피해농가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세미나**

| 구제역을 통해 본 생태목회 |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구제역을 통해 본 생태목회

양 재 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창2/15)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시24/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요6/51)

◆ 들어가기

▶ 지금 인류는 지구 생태계 재앙이라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 요청되기에 창조세계에 대한 신학적 접근과 신앙적 응답이 절실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걸작으로 인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을 지으셨고 생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더불어 들풀을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십니다. 그 어떤 생명도 하찮게 여겨져서는 안 되며,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 우리나라는 해마다 조류독감으로 3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시켜왔습니다. 올 해도 AI조류독감으로 지금까지 6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되었습니다. 광우병 파동에 이어, 올 겨울, 구제역 재앙은 소와 돼지 350만 마리를 생매장시키고도,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매장은 생명에 대한 폭력이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정이며, 인간성에 대한 포기입니다. 아벨이 흘린 피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가축들이 흘린 피를 땅에서 찾을 것입니다. 구제역은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룬 인간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생명의 저항입니다.

▶ 이번 구제역 재앙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축산업 자체가 불가능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밀식 축사, 기존사육방식, 살처분 등 인간중심적인 반생명적 태도는 인류의 미래는 물론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폭력입니다. 특히 축산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전환, 살처분과 같은 방역방식의 재고로 미래 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농민과 살처분 과정에 동원된 공무원, 군인 등 충격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고 격려와 기도가 요청됩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구제역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통해 생명과 축산업, 밥상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뒤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위기의 지구

▶ 지구상에서 하루에도 4만~6만 명이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개발과 벌목으로 숲이 사막으로 바뀌고, 도시와 도로건설로 농경지가 사라지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곡물생산량이 줄고, 지나친 육식으로 상당량의 곡물이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기 때문이며, 식물에너지의 전환으로 인한 곡물이 급속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PCC(국제기후변화 조정위원회)의 4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하루에 150~200종의 동식물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10%, 2도 상승하면 2~30%, 3도 이상 상승하면 4~70%가 멸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100년엔 지구의 온도가 최고 6.4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생물의 80% 이상이 멸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멸종 속도의 1000배나 빠른 속도로 멸종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지구 종말입니다. 올 겨울, 북극은 가장 따뜻했습니다. 얼음이 녹아 뱃길이 열리는 등 이상 징후가 오래전부터 감지되었습니다. 반면에 북반구 전체는 혹한과 폭설로 난리를 당했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를 붙들고 있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북반구를 꽂꽂 얼렸습니다. 80평생에 이런 장기간의 혹한은 처음이라며 이렇다가 정말 지구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어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구상에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빙하는 태양열을 복사하여 지구 온도 상승을 저지하고 있지만, 얼음이 녹으면 태양 복사열을 그대로 흡수하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 남반구는 가뭄과 홍수로 여러 나라들이 난리를 겪었습니다. 거기에 지진과 화산폭발,

확대되는 사막화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밀림이나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줄어든 만큼의 사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아프리카의 북부, 유럽의 남부, 중국의 북서부와 몽골 등은 사막화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지난 25년 동안 30여종의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백신이 없는 슈퍼 바이러스가 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인류를 전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이미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콜레라나 장티푸스가 다시 출현하여 변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돼지플루가 신종플루로 전환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구제역의 정의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의 입·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어린 가축은 치사율이 높고 성장할수록 낮아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입니다. 소의 경우 잠복기는 3~8일이며, 초기에 고열(40~41℃)이 있고, 밥을 잘 먹지 않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립니다. 잘 일어서지 못하고, 통증을 수반하는 급성구내염과 제관(蹄冠)·지간(趾間)에 수포가 생기면서 앓다가 죽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만일 이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감염된 소와 접촉된 모든 소를 소각하거나 매장해야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조직배양 백신을 이용한 예방법이 이용되고 있지만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 구제역 사태개요

2010년 11월 23일 안동에서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첫 의심 신고가 들어 온 후, 일주일(10시간이면 역학조사가 됨)이 넘은 11월 29일 확정판결이 나와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료차량, 도살차량, 분노차량, 우체부, 가스배달차량이 구제역 발생 축사에 왔다가 갔고 그로 인해 전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기방역에 실패한 이유이고, 그로 인해 정부의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전에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음으로 음모론을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소와 돼지 35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생매장)되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살처분 방식을 재고하겠다고 하지만 특별한 방역대책을 내 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태의 원인

▶ 이번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재앙이 된 것은 정부의 초등대응 잘못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육식문화가 발단입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 주범인 셈입니다.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먹이로 삼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소·돼지 같은 가축을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먹이를 탐하지 않는 짐승과 달리 인간은 끝없이 먹이를 탐닉하며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 가축을 또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단순한 영양공급원으로 간주하면서 가축 사육은 ‘고깃덩어리 제조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축을 탐욕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한 가축 바이러스의 역습은 피할 수 없습니다.

▶ 결국 육류소비의 증대는 과잉 축산을 양산하였고 오늘과 같은 공장식 밀식사육을 일반화시켰습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수의 가축을 기르자니 피할 수 없는 선택인 셈입니다. 또한 탄식하고 신음하는 피조물의 탄식소리를 외면한 한국교회에도 책임이 큼니다. 창조세계의 보전과 생명을 소중히 다루어야 함을 가르쳐야 할 교회가 창조신앙에 대한 무지와 창조세계의 청지기 사명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구제역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 사태의 문제점

▶ 초기 늦장 대응과 안일한 대처, 허술한 방역망 관리로 인하여,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관리체제가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이 큼니다. 청정지역지위 확보란 명분을 위해 백신접종 시점을 놓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병을 키웠고, 생매장(살처분)은 생명권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축산업자와 방역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충격을 가중시켰고, 가축매몰지에는 질소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항생제, 식중독균, 방역시 사용된 소독약 등 환경오염물질, 가축 부패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이 있어 침출수를 통해

누출될 경우 환경적 위해가능성이 높으며 악취,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바이러스 발생도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축산은 공장식 밀식 축사와 사육방식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값 싼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동물권이 무시된 채 사육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나친 육류 소비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연간 미국은 100억 마리, 우리나라는 10억 마리의 가축을 도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제역은 육식문화와 사육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재앙의 신호탄입니다. 정부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야 하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치료하는데도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새로운 밥상문화의 전환과 축산방식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 일반적 입장

▶ 대부분의 가축들은 쇠창살에 갇혀 일생을 보내고 있으며, 닭은 태어나자마자 부리가 잘린 채 밤낮도 없이 고기와 알 생산만을 위해 사육되고 있고,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먹이만 먹다 우리의 먹이가 되는 돼지들은 평생 햇빛 한 줌을 보지 못하고 길러집니다. 이런 반생명적 공장식 밀식 사육을 지양하고, 사육활동 공간 등 주변 환경을 관리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동물권 보호법을 제정하고 법정 사육공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제 울타리 사용을 금하고 있고 어미와 새끼가 적당 기간 함께 살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성장촉진제와 항생제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동물 생활권도 보호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산업구조 속에서 축산업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육성해야 하는지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적정 사육 두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 치밀한 방역 시스템 매뉴얼(과학적)이 마련되어야 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살처분(생매장) 방식의 방역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이번 구제역 사태는 살처분으로 구제역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살처분은 초기 방역에 실효성이 있을 뿐 확대되면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 매몰지에 EM를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2차 오염을 줄이기 위한 세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후 관리팀을 구성하여 날씨가 풀리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매몰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염저감장치 등 오염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구성된 조사단을 통하여 치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 고비용, 저효율의 육식을 줄임으로 공장식 축산업을 축소해가야 합니다. 남의 생명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 윤리적 소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기독교적 입장

1) 성서적 입장

▶ 모든 동물은 하나님 창조의 걸작으로 존엄한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곤 하늘과 땅을 가르셨고, 땅은 다시 바다와 육지로 가르시어, 그 곳에 깃들여 사는 길짐승, 들짐승, 집짐승을 손수 만드시곤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을 기르시고 입히십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다 하나님의 것이며,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축도 단순히 인간의 먹이로만 의 삶이 아니라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창조신앙을 믿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모든 동물은 그 고유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가집니다. 제 숨을 평화로이 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생명들과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창조질서인 자연질서에 의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을 잘 돌보고 지킬 청지기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처음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더불어 동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가축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 예수께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밥상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밥상은 성찬식에 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실로 밥상은 살아 있는 생명들이 희생하여 만든 거룩한 것입니다. 밥을 먹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밥이 되어 우리에게 먹혀 우리를 살리고 있는 생명체들의 뭇까지 살아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 기독교 생태전통

- ▶ 처음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동산을 잘 돌보고 보전하는 정원사였습니다.
- ▶ 노아는 지구멸망에 때에 각 종 동물을 방주 안에 들임으로 보전한 야생동물 보호자였습니다.
- ▶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으며 검소한 복장에 검소한 밥상으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 ▶ 예수는 자연을 매우 사랑했으며 자연과의 친교가 매우 긴밀하여 물위로 걷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해를 받지 않고 야생동물과 어울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만물 안에 계셨으며 자연에서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 ▶ 동방 교회의 전통에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주적인 존재로 이해되었는데,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하여 모든 물질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린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는 인간은 물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었습니다.
- ▶ 6세기 베네딕트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구의 몸을 쪼개고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행함에 생명의 외경을 가지고 하면 성사요, 무지와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죽이면 이는 신성모독행위”라고 말했습니다.
- ▶ 영국에 복음을 전한 7세기의 켈트지방의 성인들은 자연에 존경과 친교를 보냈습니다. 케빈은 사순절 기간에 30일 철야정진하고 있을 때 새 한 마리가 손바닥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결국 새끼들이 부화되어 날아가도록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생태계를 망친다고 수도원 건립을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 ▶ 11세기 프란치스코는 지구를 확장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으며 해와 달을 형제자매로 불렀고 이리와 사슴도 형제와 자매로 불었습니다.
- ▶ 12세기 빙엔의 힐데가르트는 “자연은 기쁨과 경탄과 찬양과 경외 그리고 특히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며, 지극히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입 맞추며 포옹하기 위하여 연인으로 가장한 채 자연에게 다가가신다.”고 말했습니다.
- ▶ 13세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자연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이며, 성서 이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은 저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다.

▶ 20세기 슈바이처는 『생명의 외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뚝 선 나무 한 그루, 떨리는 나뭇잎 하나에서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놀라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그 세계가 생명으로 충만해 있으며, 모든 생명이 신비로 가득 차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생명의 신비와 하나가 되어 있음을 더욱이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지닌 신비를 관조하며, 자신의 생명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온갖 생명체들과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경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웨리 맥페이그는 “자연은 하나님의 몸이며,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동물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 생태신학자 도드는 자연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창조세계를 보시고 연실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창조의 세계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만물은 저마다 고요한 빛깔을 갖고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 지는 해를 보십시오. 그 붉은 노을과 그 찬연함을 보고 누가 탄성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 한국교회의 대응

어느 때보다도 생명이 대규모로 죽임당하고 있는 오늘날, 생명에 대한 올바른 역할이 한국교회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토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기독교 신앙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신 이유를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구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종자학살,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학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간 하나님의 생명과 자연세계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연은 탄식하며 자신을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가축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가축을 돌볼 책임이 있음도 깨달아야 합니다.

▶ 한국교회는 기도회를 열어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학대한 것에 대해 참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연회를 열어 구제역의 실상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알려야 합니다.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창조질서보전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 과도한 육식을 가져온 인간 탐욕을 극복하고 절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불러왔다”는 고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간의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과 교육, 영성적 수련이 요청됩니다.

▶ 과도한 육식을 대폭 줄이고, 곡채식을 늘려야 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하여 먹고, 음식물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소박하고 건강한 밥상문화인 ‘생명밥상운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방역에 참여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장애에 시달리는 피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치유사역이 필요합니다.

▶ 축산규모를 줄이고 유기축산이나 자연축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사육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생태목회

1) 구약의 목회(하나님의 목회)는 제사장적 목회와 예언자적 목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제사장적 목회는 신도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여 사죄의 은총을 입게 하고, 돌봄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돕는 목회입니다. 신도의 절망이 내 절망이 되고, 신도의 고통과 아픔이 내 고통과 아픔이 되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복이나 빌어주고 격려하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먼저 신도와 하나가 되는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엔 그 의미가 있습니다.

▶ 다른 하나인 예언자적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과 삶(몸)으로 세상에 전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언자의 급선무는 불의와 거짓된 짓을 일삼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지극히 작은 존재에게 당신의 마음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돈에 요동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생명의 소리에 예민합니다.

2) 신약의 목회는 예수목회와 초대교회 목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예수목회의 비전은 생명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의 논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는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민중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해방을 도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처럼 대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온전히 순명하셨습니다. 불의와 거짓에 저항하였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소유를 넘어 존재론적 삶을 실현하셨고,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셨습니다. 힘과 물질의 세력인 악마적 권력에 대항하고 물리치시고 진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지하셨습니다.

▶ 초대교회(성령) 목회는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였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철저한 신앙공동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중심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 실현을 위해 일했으며, 예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공동체를 표방하였고, 밥을 나누어 먹는 가족친교결사 공동체를 추구하였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봉사 공동체와 예수 살기를 실현하는 고백과 증언공동체로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3) 이제 생태목회를 추구할 때입니다.

▶ 하나님은 선한 의지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은총을 만물 안에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영성, 녹색은총) 자연은 창조질서에 의해 운행되며 자연만물을 보전하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처음 사명임을 확신합니다. 자연은 그저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생태목회는 지역현안과 시대과제를 목회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응답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지역교회를 표방하고 흘러왔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은 주목해야 할 곳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제 숨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의 실현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인 생명, 평화 문제를 품고 생명평화공동체운동에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 생태목회는 녹색교회를 추구합니다.

◆ 녹색교회 운동

▶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위한 기도,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설교, 생태교육, 자원재활용, 생태적 교회 관리, 친자연적인 건축, 유기농산물이용, 곳곳이 대신 화분을 놓고, 불필요한 행사는 줄이고 행사를 간소화, 차 없는 주일을 지키고, 차없는 주일을 지키고 대중교통을 생활화, 환경현안에 동참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엔 반대하고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 숲 조성에 동참, 교회 주보나 자료집을 재생용지로 만들고, 햇빛이나 풍력발전소를 설치 운영, 환경부를 구성하고, 모든 교회사역에 환경선교와 연계, 아울러 창조영성을 믿고 창조질서보전 명령이 최초의 사명임을 교육합니다.

▶ 생명의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합니다. 교회가 유기농 우리 쌀을 먹음으로 유기 농가를 살리고, 유기농은 제초제와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땅을 살리고, 주변 생명체들을 살림으로 생태계를 살리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살리게 됩니다. 생협을 이용합시다.

▶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합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주보나 자료집을 재생용지로 만들고 복사용지, 프린트 용지를 재생용지를 이용하면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자원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초록가게를 운영하여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것을 유도하고 자원순환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합니다. 친환경용품을 사용합니다.

▶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속가능에너지 시설(태양광, 풍력, 지열)을 갖추는 것은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내복을 입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열 기구를 사용합니다.

▶ 은총의 숲을 조성합니다. 몽골은 남한 땅의 18배인 거대한 땅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사막이고 나머지 90% 영역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샘 근원 1500개가 말랐고, 하천 700개, 호수 700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엔 몽골이란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은총의 숲은 몽골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은총의 사업입니다.

▶ 지구 생태계의 운명을 지을 생태교육은 그 어느 교육보다도 소중합니다. 환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태캠프를 운영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생태교육에 참여합니다.

▶ 교회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창조질서보전운동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하면 창조질서보전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 생명밥상운동을 전개합니다.

◆ 생명밥상운동

1) 생명밥상과 성만찬

▶ 생명밥상운동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밥상을 차려 공손히 먹고 음식을 남겨 버리지 않음으로 내 몸과 마음, 하나님의 창조세상을 살립니다.

▶ 공기, 물, 밥 등 천지자연이 다 밥상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합성세제와 농약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식품 첨가물과 함께 먹을거리의 오염을 불러왔고 인스턴트식품과 청량음료는 경제성과 상술로 인하여 독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엔 보기 좋고 맛을 내기 위해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 수십에서 수백 종이 들어가 있어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에서는 시판이 금지된 유전자조작 식품이 유통되고 가축은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사료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공기, 바람, 숨은 인간이 먹은 최초의 음식입니다. 동산 중앙엔 강이 흘렀고 물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처음 식탁은 채식밥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은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하나님은 피 채로 먹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 동물을 인간의 먹을거리로 허락하십니다. 이는 생명을 함부로 유린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먹으란 말씀입니다.

▶ 예수께서 당신을 가르쳐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며 물이라고 하신 것과 당신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란 말씀은 영적이면서 생명밥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장하는 떡과 물, 즉 살과 피는 예수의 가르침과 삶,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밥상입니다. 이 선언으로 우리는 모든 밥상이 이미 하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생명밥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밥상은 생명들로 꾸며진 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이 밥상을 이룬 것입니다. 이미 밥상은 예배입니다. 제물인 밥은 먹는 이에게 먹혀 살과 피가 됩니다. 그러기에 먹는 이는 먹히는 것들의 뭇까지 살아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밥을 먹고 기꺼이 밥이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기꺼이 인류의 밥이 되어 주었듯이 기독교인들은 밥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생명밥상운동의 의미

▶ 창조세계를 살리는 살림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의 특성상 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 오염을 유발하며, 소각할 경우 비용증가는 물론 불완전 연소로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합니다. 생명밥상을 차리는 것은 우리의 땅이 화학비료와 농약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음으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고통 받는 많은 생명들의 고통을 덜어 주며, 창조세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 청빈(淸貧)을 실천하는 경제운동입니다.

우리나라 남은 음식물의 경제적 손실 가치는 1년에 15조원으로 우리나라 한 해 자동차 수출액에 해당하고 북한 주민 1년 양식과도 같으며 처리 비용만도 4천 억원에 이릅니다. 생명의 밥상을 차리고 남김없이 먹겠다는 작은 실천은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되며,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 굶주리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나눔 운동입니다.

북한에서는 연간 7살 미만의 어린이 4만 명이 심각한 영양결핍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섯 살 미만의 아이가 하루에 3만 명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박한 밥상을 차려 남김없이 먹겠다는 다짐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른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 안전한 먹을거리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건강운동입니다.

생명의 밥상을 차리는 것은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재배된 먹을거리, 유전자 조작식품, 인스턴트식품들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는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만들고 덜어 먹으면 과식하지 않게 되어 비만 등 성인병을 예방 할 수 있고, 밥상에서 절제를 배울 수 있게 되어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 지구의 건강은 생명의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섬기는 신앙운동입니다.

한 톨의 낱알에는 햇빛과 바람, 비와 흙, 농부의 땀과 수고가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있습니다. 다른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살아가는 밥상은 거룩한 성찬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의 마음으로 밥상을 대하는 것은 생명을 경외하는 신앙의 작은 실천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고, 남김없이 비우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지키고, 다른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3) 생명밥상 차림의 12가지 수칙

- 하나,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애용한다.
- 둘, 제철음식을 먹는다.
- 셋, 가공식품을 삼간다.
- 넷, 외식을 최대한 줄인다.
- 다섯, 계획 구매하며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여섯, 단순하게 조리하여 먹을 만큼 담아낸다.
- 일곱, 반찬수를 줄여 간소한 상을 차린다.
- 여덟, 육식보다 곡식과 채소를 즐긴다.
- 아홉, 생명주심에 감사하며, 천천히 먹는다.
- 열, 신음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소식한다.
- 열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

열등, 최소한으로 배출된 음식쓰레기는 재활용한다.

◆ 한국교회에 제안.

▶ 한국교회는 먹을거리에 대한 깊은 통찰과 반성을 통해 생명의 먹을거리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지난 10년 동안 펼쳐온 <생명밥상운동>은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운동 자산입니다. 한국교회가 올 해만이라도 생명밥상운동을 펼칠 수 있다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고 이 시대의 구조도 바꿀 수 있습니다.

▶ 생명의 먹을거리를 위한 한국교회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교단과 교회, 선교단체와 개인, 농목단체와 생협조직 등 관련된 모든 조직을 토대로 연대체를 구성합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연대체입니다.

▶ 지나친 육식문화를 바꾸기 위해 육식을 일주일 혹은 열흘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외국축산물을 사용하지 맙시다. 창조질서를 따라 자연과 소통하는 지역순환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족하는 신앙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즐기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도자이며 수행자이어야 합니다. 영성교육을 강화하여 지구에 부담을 덜 주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합시다.

◆ 결론

▶ 한국교회는 2011년 <<생명을 택하라>>는 주제에 맞게 구제역 문제를 세밀하고 시급하게 풀어 가야 합니다.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창조세계를 잘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처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어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보며, 한국교회에 창조적 정언명령을 내리십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환경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인간 탐욕의 결과인 환경오염은 급기야 지구재앙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 당대에 지구가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과학자들이 경고를 겹겹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화려했던 신생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지구와 함께 그 최후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류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생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위험에 처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자연의 재생능력과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불굴의 열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연의 재생능력은 하나님의 뜻이니, 결국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불굴의 열정이 지구 생태계의 희망인 셈입니다.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하는 피조물의 해방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하며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창조세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환경파괴입니다. 환경파괴는 단순히 환경이 부서져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인류의 불행은 환경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 하나님조차도 경탄하신 자연의 영감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간 자연을 그저 이용의 대상과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가장 큰 불행입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는 자연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아야 합니다. 좁은 길에서 희망을 봅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길, 불편을 감수하는 길, 딱 알맞게 사는 절제의 삶이 지구를 구원할 희망의 삶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세미나**

생명 돌봄과 생명 경시에 대한
농촌 목회자적 관점에서의 구제역

박 순 응 목사(동면교회)

생명 돌봄과 생명 경시에 대한 농촌 목회자적 관점에서의 구제역

부제 : 목회 지침서

박 순 응 목사(동면교회)

농촌목회를 해 온지가 24년 쯤 되어갑니다. 특히 지난 한해와 올해 명절인 설을 접하면서 점점 초록 지구별에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위기의식을 이렇게 처절히 느껴 보기는 처음입니다. 소, 돼지만 생매장, 살처분 된 수가 무려 3백만 마리가 넘었고 그 보다 작은 닭, 오리의 수가 무려 5-6백만 마리가 된다고 하니 천만 마리의 생명이 순식간에 우리의 탐욕으로 살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무감각한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부끄럽고 슬퍼만 옵니다.

그렇다고 그냥 냅 놓을 수만은 없기에 당신께 엎드려 빌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맘을 주시고 더불어 생명 돌봄의 하나 됨을 허락하기를.....

이야기 하나. 산상수훈의 팔복중심으로 농촌교회여 행복하여라.
경쟁과 자본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본질을 회복하는 농촌교회.

농촌 목회자들의 마음을 모아 보려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교우들 가축을 키우시는 교우와 이웃들의 마음을 먼저 다듬고 정결해지고자하는 마음을 모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 가운데 농촌을 당신의 나라로 함께 해야 할지를.....

아주 영악한 흰둥이 장사꾼이 아프리카의 어리석은 검둥이 마을에 갔습니다. 영악한 흰둥이는 그 마을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검둥이 마을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동산으로 올라가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북소리에 맞추어서 하늘을 향해 무수히 절을 하다가, 이윽고 붉은 해가 등실 떠오르면 모두 하나같이 놀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길길이 뛰며 마구 소리 지르며 춤을 추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에 손을 잡고 마을로 내려와 남정네들은 밭을 일구며 아낙네들은 밥을 지으며 아이들은 집 안팎을 청소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흰둥이 장사꾼이 검둥이 추장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물었죠. 추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께서 우리에게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 빛을 받아야 하루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악한 흰둥이 장사꾼이 큰 돈 벌 생각을 하며 추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신통한 새를 얻은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꼭두새벽에 예배, 기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찮은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장과 장사꾼은 쉽게 거래를 했죠.

얼마 뒤 흰둥이 장사꾼이 잘 생긴 수탉 한 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 새가 새벽에 울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며칠 간 시험을 해 보니 척척 맞아 떨어지니 추장은 흰둥이 장사꾼에게 마을의 엄청난 보물과 상아를 한 아름 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검둥이들은 그 신통한 새가 해를 불러주기 때문에 일찍 일어 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늦잠을 자니까 게을러졌고 게을러지니까 밭에 잡초가 우거졌고, 마을은 순식간에 황폐해졌습니다. 아이들 역시 버릇이 아주 사나워졌습니다.

점점 이런 결과에 놀란 마을 어른들 급히 모여 의논해 보았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얼마쯤 지나 영악한 흰둥이 장사꾼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때 마을의 어른들과 추장은 흰둥이 장사꾼과 다시 흥정을 했습니다. 수탉을 내어주는 대신에 마을의 나머지 보물을 모두 내어주는 흥정을 한 것이죠.

해를 불러주는 신통한 새가 없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매일 꼭두새벽에 다시 동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양을 잡아 예배했고, 북소리에 맞추어 춤을 출 때, 해가 빛을 내고 그 빛 받아 예전처럼 놀라 소리 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은 전처럼 매일 새벽마다 놀라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금 행복해졌습니다. (최완택의 ‘아름다운 순간’ 중에서)

어수룩한 검둥이의 삶, 행동이 비성서적이라 할지라도 혹은 샤머니즘적인 모습일지라도

다시 찾아야 되고 회복시켜야 할 우리 신앙인의 본 모습이며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농촌교회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금의 자본방식에 따른 농, 축산업의 농부들이 사실 더 땀 흘리고 애쓰며 그야말로 꼭두새벽부터 해를 맞이하며 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빠지고 오로지 경쟁과 자본 그리고 탐욕에로의 해맞이는 영악한 횡동이와 다를 바 없기에 다시금 마음을 내려놓고 살펴보기를.....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행복을 통해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신앙운동이 아니겠는지요? 돌아갈 수 없는 길 일지라도 분명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15년 전에 브루더 호프라는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어른, 아이들의 천국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일주일간 머물면서 많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 어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오랫동안 공동체를 유지해오는데 그때그때 마다 고비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해 나오셨는지요.” 팔순이 넘으신 어른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더군요. “예 우리는 그러한 역경이 있을 때 마다 늘 바라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중에 팔복의 말씀으로 대부분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공동체의 모습은 그야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농촌교회의 본질을 어찌면 산상수훈에서 찾을 수 있고 회복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는지? 예전의 농촌 본 모습을 찾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왜냐면 자본의 모습이 우리를 너무나도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까지도 그럴 수 없기에 교회의 본질인 산상수훈을 살펴보았으면.....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지구의 초록별을 염려하는 환경론자들이 이대로는 생태계의 위기가

닥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냐가 아닌 우리 모두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농촌의 교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의 심정으로 한 걸음 내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 둘. 하나님의 본질을 헤아려 살아가는 농촌교회, 교우, 농부님들.
생명경시 풍조에서 생명 돌봄의 농촌교회로.....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지향하는 농촌교회, 교우

지금 농촌은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하고 있음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생명 돌봄보다는 탐욕으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빚어진 모습에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뒤척이는 순간 문득 예전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촌에서 목회하실 때 일입니다. 지금처럼 집단식의 소를 키우는 사육 방식이 아닌, 그저 자식처럼 가족의 하나로 키우시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급히 오셔서,
"목사님 어미 소가 새끼를 낳는데 너무 오랜 시간동안 통증을에미가 숨이 넘어가네요....." 아버님과 어린 저도 급히 권사님 택으로 자전거를 타고 향하였죠.

도착하니, 권사님이 우선 저희 아버님께 기도부터 부탁을 하더군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샤머니즘으로 생각해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람도 아닌 짐승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해. 이왕이면 좀 더 고귀한 기도를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제역을 맞이한 입장에서 보면 그 애뜻한 마음과 정성이 참으로 순수하고 거룩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뭔가에 쫓기어 자꾸자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생명의 탄생에 서로 염려하고, 힘주고, 기다리며, 걱정하는 뭐 그런 행동들이 참으로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염려의 덕분으로 새끼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그때 어린 제게 있어서는 생명이 무엇이고 생명의 돌봄, 애뜻함, 교감 등등을 조금이나마 보고 알았기에 지금의 농촌에서 함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 벌써 40여년이 지난 지금의 축산 농가를 접해보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집단적이며 폐쇄적인 지금의 축산 농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들일 것입니다. 먼 추억의 가축 길렀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본질적인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 가정, 피조물에게까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거룩함만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회복되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 농촌목회자들에게 또한 생명을 양육하고 돌보는 교우 농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보고, 더불어, 함께 살기를 요구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 방식의 반생명적인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살 처분, 집단 폐쇄식의 생산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체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하신 그 뜻은 분명 지금의 모습이 아닌 어울림일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 소 키우시는 권사님께서 세 주간 교회를 출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점점 구제역이심해지다 보니 본인보다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신다는 생각에 예배도 함께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나니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어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에 더 속상하더군요.

그 어떤 것으로 위로 할 수도 없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현 상황과 시스템, 예전의 놀램에 위로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함께하는 애뜻한 마음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에 더욱 큰 충격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갈라놓은 것인지 아마도 가장 큰 것은 “욕심”이겠지요.

이 욕심과 탐욕을 버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의 모습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끌려 갈 수 없기에 중간 역할이 바로 종교일 것입니다. 같이 살 수 있는 삶을 찾는 일이겠죠.

한꺼번에 모두가 변할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씩 농촌교회가 교우인 농부가 신앙과 말씀 속에서

농사를 바르게 지어보겠다고 35년 전에 모임을 만들어 지금까지 정신적인 힘을 보여주는 정농회(正農會) 회원들처럼, 그렇게 함께했으면 합니다. 그들의 복음적인 삶의 영향으로 지금의 유기농가들이 생겨난 것이기에 더욱 몇몇 농촌 교회라도 거기에 생명돌봄이 있다면 그 길로 걸어갈 원합니다.

지금의 공장 집단 사육 방식이 아닌 유기축산으로 거듭날 때만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목회자들의 모습 또한 생명을 돌보고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교우들과 더불어 형제요 자매인 가축의 생명과 더불어.....

이야기 셋 절제하는 식생활, 살림의 식탁문화로 전환하기.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우, 농부님들
가축도 우리와 같은 한 생명이기에 동물권 존재로 다시보기
나는 생명을 나누고 함께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털 먹고, 털 쓰고, 털 개발하기의 3털 운동하기

지금의 먹을거리의 문제가 결국은 국가적인 재앙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인간의 과(過)도한 육식문화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도시의 소비자들이 육류를 원했을 것이고 그러기에 농촌은 돈이라는 것에 길들여져 엄청난 축산을 짓기 시작한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업들과 정치가 맞물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길러진 먹을거리는 결코 생명의 먹을거리라 할 수 없습니다. 탐욕의 덩어리지요.

현재의 공장축산은 잘 아시다시피 먹이는 것이 독으로 가득합니다. 90%이상 외국에서 사온 사료, 제초제를 뿌려서 키워 온 별 집단, 거기에 수입된 풀, 항생제, 비육시키기 위한 성장촉진제, 거세, 인공수정, 좁은 공간에서의 삶으로 인한 관절염증 등등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독을 먹는 것이지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닭 같은 것은 더 열악한 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인간의 먹이로 돌아갑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그저 알만 낳다가 폐닭이 되어 삼계탕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닭의 부리는 새끼 때부터 잘라놓는 답니다. 부리를 자르는 이유는 옆의 닭을 쪼면 상처가

나서 바이러스가 번지기에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 아예 잘라버린다는군요. 이러니 스트레스가 좀 많겠어요? 스트레스로 낳은 닭의 알이 건강한 먹을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과도한 육식의 문화를 일구어내고 있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과하게 소비하게끔 만들어내는 이 사회 속에서 육식의 문화를 절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 여겨집니다. 필요한 만큼 혹은 절제된 소식을 한다면 축산업자들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양이 필요치 않은데 굳이 많이 키울 필요가 없겠지요?

적은 양의 축산을 키운다면 좀 더 공간을 넓게 그리고 좀 더 좋은 사료 등등의 그래서 도시의 소비자와 신앙인들도 건강한 그리고 절제의 식생활을 통해 질병을 막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와 같은 구제역 조류 독감의 질병뿐 아니라 인간의 질병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만이 사는 길이 아니라 지구까지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육식을 위해서 엄청난 초지와 식량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지구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햄버거용으로 키우는 소로인해 아마존의 삼림이 절반가량 사라진지가 오래전일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소의 방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것도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절제된 식탁의 문화야말로 가장 작은 단위에서의 가장 큰 실천적인 대안입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일 것이며 교우들일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생명과 평화의 일이라면 더더구나 시급한 일입니다. 식탁의 문화가 곧 신앙운동입니다. 이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생명밥상 빈 그릇 운동의 일을 십여 년 전부터 외치고 있지만 실천에까지는 미약합니다. 불교에서 ‘빈 그릇 운동’을 먼저 했지요. 이 역시 실천에까지는 미약하다 합니다. 이번의 구제역으로 더욱 이러한 운동들이 활발하게 움텃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종교인 원 불교에서는 재밌는 운동을 전개하더군요. “3 달하기 운동이래요.”

“덜 먹고, 덜 쓰고, 덜 개발하기”

감리교 중에서 유일하게 유기농 식단으로 전교인 매 주일마다 공동식사를 하는 교회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 중구 용산 청파동에 있는 청파교회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천안에 있는 단비교회의 유기농 쌀부터 시작해 모든 식 재료를 우리의 농산물 유기농으로 전환해 공동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농 식단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절제된 공동식사라는 것입니다.

300명정도의 공동식사를 마치고 난 뒤의 음식물찌꺼기가 1kg정도도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적은 양의 식사와 남기지 않는 식사 문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유기농 식재가 좀 비싸기는 해도 싼 자재를 많이 구해 남기는 것보다 적은 양의 유기농을 구해 알뜰하게 먹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랍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먹을거리를 나눈다는 의미와 건강하게 땀 흘리는 생산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들을 함께한다는 것에 더욱 행복하고 기쁘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6년 전부터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정갈하게 공동식사로 함께했습니다. 목회자인 저희 가족이 모두 채식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우들도 함께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잘 했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축산 농기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하니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방식의 교회들이 아마도 여기저기 있을 듯합니다. 함께 어디에서든 이러한 절제된 식탁의 문화 운동이 종교인으로부터 움직여진다면 훨씬 더 재앙을 막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운동은 그분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넷 농촌교회로써의 신앙고백 기도

성찬 식사의 기도 내용

해, 달, 바람, 구름, 물, 흙, 농부, 등등 수많은 유기체들의 고마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여기에 실려지는 농촌교회의 신앙고백은 감리교 농촌선교 목회자 회에서 1995년도부터 사용되어져 온 내용입니다. 점점 더 피폐해지고 생명력을 잃어져만 가는 농촌의 아픔에 생명과 공동체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마음과 정성을 모아 만든 고백 기도문입니다. 아픔의 구제역을 통한 보다 더 넓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형제, 자매인 피조물의 생명체까지 힘, 평안, 위로가 되는 신앙고백이었으면 합니다. 조금씩 응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생명의 밥으로 오시어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땅, 온 마을 마을에 가득하신 보혜사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빛은 흠과 생명을 보듬어 안은 땅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며,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농부의 땀과 자연의 기운을 통해 생명을 풍성케 하심을 믿으며, 흠에서 배우고 흠을 돌보며 생명을 일구느라 땀을 흘리는 농부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믿습니다.

땅은 더럽힐 수 없으며, 결코 사고 팔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삶과 일을 나누고 섬기는 농촌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온 식구가 일한 뒤에 나누는 밥상이 진정한 주님의 성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논과 밭에서 일하는 가운데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만물에 깃들어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활짝 펼쳐짐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부터 사막 교부들과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은 이런 식사 기도를 공동으로 함께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음식과 이 소박한 음식이 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린 여러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대접하려는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먹는 우리에게도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야기 다섯 하나님, 자연,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의 농촌교회.
농촌 교회가 있는 마을 그림 그려보기.
너희가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마을 속에 교회가 있듯이 하나님 안에 자연과 사람이 있지 않은가? 물론 하나님 역시 자연과 우리 안에 계신다. 이는 분명 유기적인 관계란 것이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돌봄, 배려, 이해, 나눔, 헌신, 사랑, 아픔, 슬픔, 고통, 기쁨 등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더불어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언젠가부터 끊어진 것이다. 농촌도 철저히 자본이 잠식해버렸다. 농촌의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질병은 내외적으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보다 더 진지하게 묻고 답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 길 걷는 것이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먼 훗날 그 걸음이 거룩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기적인 생명체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기에 3백만 마리의 생명체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는데도 대부분의 종교는 아픔도 없고 무감각적으로 살아간다. 유기체라고 느끼지 않기에 그러하다. 유기적인 것으로 키우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예전의 아버지들은 소, 돼지를 심지어 잡아먹는 닭까지도 자식처럼 키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자식 대학 등록금으로 소 팔려할 때 몇 번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망설였던 그 마음은 자식처럼 키운 생명의 유기체였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더 깊숙이 자본에 빠져들어 간다면 더 헤어 나오지 못한다. 사람의 영혼도 돈과 바꾸는 세상이 되었지 않은가?

성서의 신명기 기자가 이야기 한다, “너희가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이 이야기는 아마도 자본으로 단절된 것이 아닌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로 온갖 것과 같이 함께하는 당신이기에

살고자 한다면 당신의 뜻인 유기적 관계를 택하라는 말씀이다.

우리의 목회적인 관점도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목회적 관점을 새롭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인간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조의 자연까지 그러기에 농촌의 목회자는 땀 흘림의 애씀도 경험해야 한다.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 자연, 사람의 생명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적인 체험만이 농촌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마치 유기적인 축산으로 이제 바뀌어야만 건강한 축산이 세워질 수 있듯이 교회도 그러하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죽어져가는 생명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아파하고 잘못했다고 그분께 용서를 빌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자본과 돈에 눈이 멀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 눈이 멀다 보니 이번에 죽어 간 못 생명들에게 있어서 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어찌 이리도 무심한가? 그것은 아마도 내 가족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어봐서 안다. 작은 미생물들의 흙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여섯 생명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연계의 생명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2년 넘게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막내 녀석이 숨 할딱거리는 새끼를 길에서 주어와 키운 것이 벌써 시간이 흘렀습니다. 막내 녀석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제 목회적 관점도 좀 더 풍성해 진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믿음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막내 녀석은 고양이를 제 분신처럼, 자신의 동생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더욱 생명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만 주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어딜 가도 ‘그 녀석 잘 있겠지 아빠’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그랬듯, 자연계의 생명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각각의 생명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생명이 나와 내가 다른 생명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양이에게 함부로 대하면 곧바로 제 막내 녀석이 제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다루어준 만큼 막내도 제게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관점을 성서의 말씀을 통해 재인식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몸으로 살아가는 농부처럼 정직하고 투명한 농촌교회
손과 발을 통해 돌봄과 배려 나눔에 애쓰는 농촌교회
살아 있는 생명을 돌보는 너희여! 행복하여라.

이곳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살아 온지도 19년째입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어언 18년
아직도 농사를 잘 모르겠네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농사입니다.

배운 것이 있다면 저희 팔십이 다 되가시는 권사님의 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농사는 시작이 반이래요” 해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반이 끝나지만, 여전히 머리로만 생각하면 하루 일이 일주일로
밀려 나갑니다. 농사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목회도 머리보다는 몸으로 해나가는 운동이 되길 바랍니다. 몸으로 움직여지면 건강한
것뿐 아니라 뚝뚝해지고 경쾌합니다. 목회도 그렇게 해야만 마을 속에서 교회가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꼭 농사를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혹은 몸으로 함께하라는
것이죠. 어느 나이 많으신 여자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계으른 사람이 밭의 생물 팔 생각으로 일하지는 않고 밭고랑부터 세어서 셈 계산한다.”고
교회든 교인이든 목회자든 몸으로 움직여 건강한 마을 교회로 함께하길.....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수 없이 죽어 나간 못 생명의 혼들 위에 감히 부끄럽게 당신의 자비를 빕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과 입을 또한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용기와 힘을 주시어 이러한 아픔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다시는 생명을 경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탐욕을 깨우쳐 주시고 과도한 육식의 문화를 줄이는 신앙인 되게 하시길...

농촌교회의 생명 돌봄에 관한 목회 지침서

한국의 농촌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보다 더 돌봄과 배려와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탐욕, 욕심, 자본의 추구에서 더불어, 나눔, 소박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농촌교회 목회 지침서를 실천하고자 한다.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평등한 생명의 한 공동체이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돌봄의 책임을 가지고 복음적인 신앙의 소망 안에서 생명의 존엄을 느끼고 함께하기에 서로 돕는다.
2. 피조물의 평등한 생명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행의 공장 집단폐쇄 방식인 사육에서 좀 더 기본적인 의식주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명권을 돕는다.
3. 각각의 피조물 특성에 따른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방식을 연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4. 인간에게 주거의 공간이 주어지듯, 각각의 생명인 가축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부인 교우들을 교육하며 법적인 제도 방침을 제시하고 이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환경에 대한 유기적 축산을 장려하도록 적극 권면한다.
5. 생명의 먹을거리 현행 방식은 언제나 질병에 노출 되어있기에 유기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도록 돕고 교육한다.
6. 생명과 더불어 소박한 생명 밥상을 위해 지역 사회, 도, 농 교류, 교회, 교단과의 협력과 연합으로 생명의 밥상이 거룩한 성찬임을 고백하도록 제시한다.

7. 바람직한 생명의 존중성에 대한 국가정책이 수립되고,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국가의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에 있어서도 행복 추구권 정책을 반영하도록 한다.
8. 농촌교회 연대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과 생명에 있어서는 평등함을..... 서로 교류, 교육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한다.
9.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에 있어서 죽음이 생명 존중의 가치가 있음을 신앙적인 것과 도덕 윤리적으로 가치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각 지역의 농촌 교회, 시, 군, 도 단위의 광역 단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회 지침서들을 열거해 본다.

* 각 지역의 농촌교회 차원에서 활동 지침서

1. 설교, 성경 연구, 환경 선교 주일(6월 첫 째 주일), 농촌 선교 주일(추석 다음 주일, 혹은 추수감사주일) 등을 통해 생명의 키움, 나눔을 통한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한다. 더불어 성서를 통한 “생명”을 다시금 바라본다.
2. 농민 교우들의 생명관이 달라진 생명 키움의 경험과 경륜을 지역과 도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농, 도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배려한다.
3. 교회 내에 선교, 교육, 사회 봉사부의 여러 부서가 있듯이, 생명을 키우는 농촌교회이기에 농촌생명부서를 두어 정기적으로 생명에 대한 선교와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4. 농촌생명선교부를 위해 가능한 한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5. 도, 농간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농촌교회가 여러 교육, 봉사, 나눔 등등의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6. 도시교회와의 직거래를 통한 농촌교회의 자립과 다양한 농촌 체험을 통한 건강한

마을을 제시한다.

7.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신앙심을 통해 한 마을에 있어서 교회가 마을의 누구에게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시, 군, 도 단위의(이하 광역) 각 교단 차원(노회, 지방회, 연회)에서의 활동 지침서.**

1.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이 있는 도 단위의 각 교단은 농촌 생명부서를 두어 농촌의 개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한다.
2. 더불어 예산도 편성하여 농촌교회의 생명 돌봄과 도 단위의 교육과 홍보 교류 등등을 적극 지원토록 한다.
3. 도 단위의 도시 목회자들의 생명 교육으로 농촌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적극 지원한다.
4. 도 간위의 생명 선교를 실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교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위한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 지역사회의 도 단위의 교회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생명 교육에 방향과 정책에 필요한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6. 도 단위의 차원에서 농촌 생명 돌봄을 위한 영성 센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생명의 유기체적인 노동, 기도, 영성, 공동체 등등 프로그램을 제시한다.